발간등록번호
전북교육 2012-025

2011학년도 초등 신규교사

창의적인학급경영연수

전라북도남원교육지원청
Jeollabukdonamwon Office of Education

2011학년도 초등 신규교사

창의적인학급경영연수

차　　례

1. 성격에 따른 행동특성 및 학습양식(전주신성초 구상윤) ····· 7

2. 눈높이를 맞추고 기다려주는 저학년 학급운영(남원노암초 한진아) ····· 16

3. 즐거운 수업을 위한 협동학급(이리부송초 최한성) ····· 24

4. 독서교육을 통한 교실수업 개선(용안초 서기문) ····· 31

5. 학급경영 및 교수·학습지도 방안(운봉초 박정선) ····· 41

6. 함께 꾸며가는 학급 환경 구성(보절초 이수진)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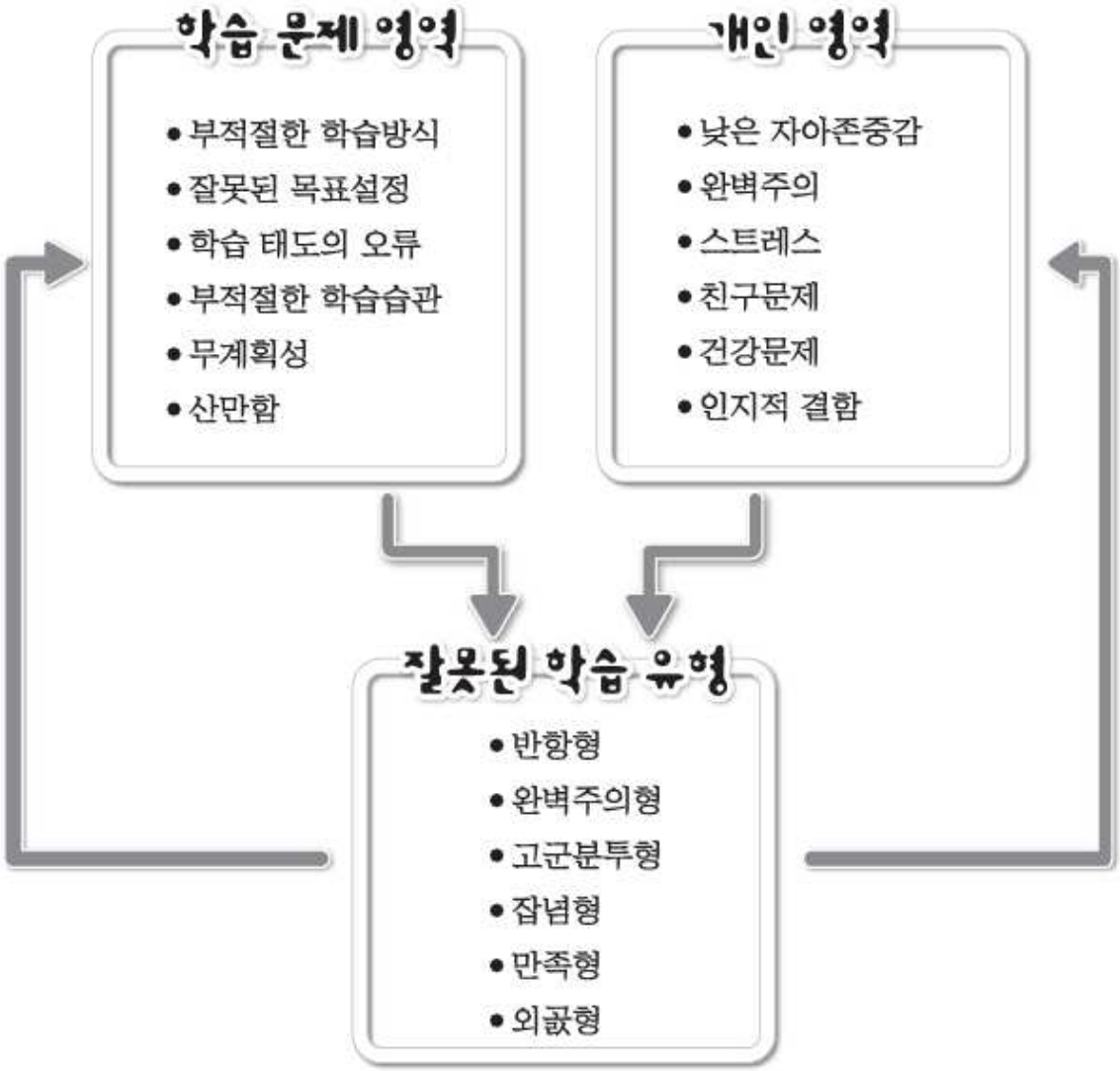
성격에 따른 행동특성 및 학습양식

구 상 윤
(전주신성초등학교 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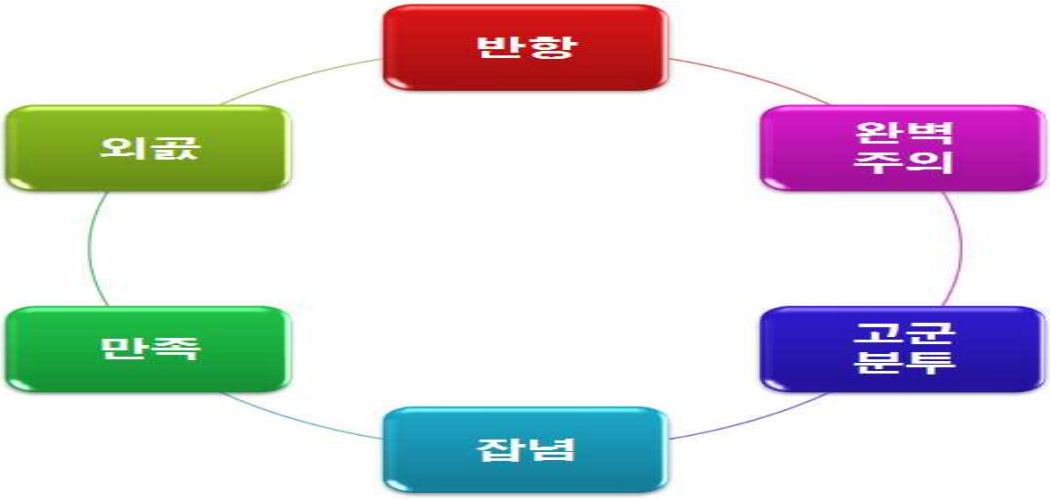
Ⅰ. 이야기를 시작하며

교실, 학생과 교사로 구성된 교육의 장.
학생들의 다양한 성격, 교사의 교수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이해와 소통, 학생을 돕는 지혜.

Ⅱ. 학업 실패 싸이클



Ⅲ. 공부 못하는 6가지 유형



1. 반항형

반항적인 학생들은 현재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공부가 자신의 미래 직업이나 실제생활과 관련이 없다는 생각을 갖고 공부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 학생들이다. 이와 같은 학생들에게는 현재 자신이 중요시하지 않는 공부에서 뿐 만 아니라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어떤 일에서도 최선을 다하지 않는 태도가 습관화된다는 것을 인식시켜야한다. 이런 태도 형성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대개 교사님과 갈등이 있다든지 해서 교사님의 의견과 반대로 행동하는 것이 마치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자기보다 상급학년의 공부를 미리 했다든가 머리가 좋아서 학교수업을 지루하게 여겨 수업시간에 장난을 치거나 교사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학생들은 학교 공부를 지루하게 여기는 학생에게는 교과내용을 다양하게 응용해 볼 수 있는 과제를 준다든지, 보다 새롭고 도전적이고 자극적인 과제를 제시하면 재미를 느끼며 열심히 공부 할 수 있습니다. 반항적인 학생들은 학습 습관이 몸에 베이지 않아 새롭게 해보려고 해도 쉽지 않으며 수업을 받는데 매우 힘들어한다. 따라서 학습에 대한 반항적인 성향이 매우 심할 경우, 가족상담과 같은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2. 완벽주의형

완벽주의형은 완벽하게 하지 않으면 아예 시작을 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말한다. 실수할까봐 미리 걱정을 해서 시작을 못하는 경우이다. 이런 학생들은 일이 조금만 어려워 보이면 해보기도 전에 포기해 버린다. 따라서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는 자신이 일을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더욱 관심을 두기 때문에 그 일에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가능성을 따지는 데에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 이런 경우라면 결과가 성공 아니면 실패만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도, 노력, 그 과정에서 배운 내용들이 자신이 된다는 점을 이해시키고 이런 점에서 실패는 가치 있는 것임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3. 고군분투형

저학년 때는 특별히 공부를 하지 않아도 따라가던 학생이 학년이 올라가서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교과내용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학생들은 간혹 머리가 나빠서 공부를 못하는 것으로 오해받기도 하는데, 머리가 나빠서라기보다는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거나 읽기장애나 쓰기장애 등과 같은 학습장애를 갖고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공부방법을 모르는 경우에는 시간을 잘 안배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법, 노트정리방법, 교과서에서 요점을 파악하는 방법, 암기법과 같은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학습방법을 지도해야하며 학습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이 되면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4. 잡념형

가정환경이나 주변상황이 매우 복잡한 경우 또는 개인적인 스트레스나 불안·우울 등의 정서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공부를 잘 하기가 힘드는데, 이러한 경우를 말한다.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나 부부간 불화 같은 주변의 복잡한 상황들 때문에 아이가 방해받지 않도록 해주어야 한다. 어른들의 문제는 어른들이 해결하고, 그것 때문에 아이가 아무 도움도 안될 고민에 빠져 공부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한 불안이나 우울과 같은 좀 더 심각한 정서적인 문제가 보일 경우에는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5. 만족형

공부를 좀 하면 교사님이나 선생님들이 더 잘 하라고 몰아붙이는 게 싫어서 적당히만 공부하려고 하는 학생들인데, 나보다 못하는 아이들도 많은데 이 정도면 잘 하는 것 아니냐, '뭘 더 잘하라는 거냐'는 식의 태도를 가지기가 쉽다. 이들은 조금만 잘 하는 듯이 보이면 더 닦달 할 테니 그걸 피하려고 적당하게 하는 경우가 있고 혹은 성적이 뛰어나서 선생님이나 교사님께 칭찬을 받는 것이 친구들로부터 소외되는 것을 염려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어떤 경우에는 자신의 장래에 대한 생각이나 목표의식이 없고 현재의 자신의 성적이나 상황에 만족하고 있어 자신의 장래에 대한 문제의식을 전혀 갖지 못한다. 대개 이들은 노력만 하면 훨씬 더 잘 할 수 있는데도 공부를 해야할 적절한 이유와 동기를 갖고 있지 못해 전혀 노력하지 않는다. 이들에게는 공부를 잘 하면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여러 가지 기회와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인생에서 중요한 가산점을 따고 들어간다는 것을 이해시켜야 하며, 또 이런 학생들에게는 잘 할 때는 칭찬을 해주지만 그게 더 잘하라는 압박감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공부를 잘 한다고 해서 반드시 친구관계가 나빠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시켜야 한다.

6. 외곬형

외곬형 학생들은 특정 과목에만 관심을 두고, 노력할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과목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다. 대입이나 입시 시험에 아무리 중요한 과목일지라도 마음에 들지 않는 과목은 전혀 공부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관심을 둔 과목에서는 우수한 수행을 보이나 그렇지 않은 과목에서는 자신의 능력보다 낮은 수행을 보여 전체 학교 성적은 뒤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정 과목에만 관심을 두기 때문에 교사나 교사와 갈등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다.

능력 평가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엉뚱한 질문으로 수업 진행을 방해할 수 있다. 생각과 행동에 융통성이 부족하며 그들은 관심보이는 한 영역의 능력만을 개발하며 다른 재능을 발견하고 계발하는 데는 관심이 없다.

Ⅳ. 삶의 목적(의미)

1. 행복 추구의 3가지 유형

물질추구형	돈 버는 일과 번 돈을 소비하는데 열중하고자 함
명예와 권력 추구형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대상이 되고자 함
자아실현형	자신이 하고 있는 일 자체를 통해서 행복을 추구함

2. 행복한 삶의 위해서는 적성발견이 중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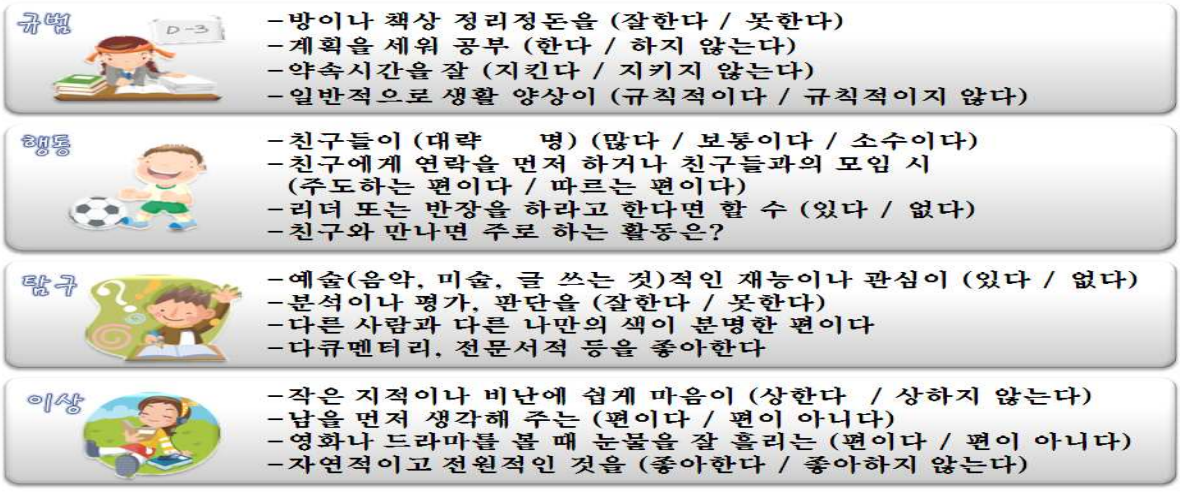
가. 적성의 의미 : 장래의 성공 가능성을 말해주는 개인의 잠재능력

나. 적성의 유형

언어능력	언어로 정확한 의사소통을 하는 능력
공간지각력	실물이나 입체적 공간 관계를 이해하는 능력
계산력	정확하고 바르게 계산하는 능력
추리력	원리를 추리하고 응용하는 능력
사무지각능력	유인물, 괘도, 표 등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이해하는 능력
기계추리력	각종 기계, 기구 및 물리학적 원리를 이해하고 추리하는 능력
수공능력	운동감각의 정확성과 신속히 반응하는 능력
척도 해석력	척도, 차트, 계기 등을 신속 정확하게 읽는 능력
기억력	자료나 항목들 분류, 상징 및 기호를 학습하고 암기하는 능력
형태지각력	물체의 형태나 명암의 근소한 차이를 알아볼 수 있는 능력

Ⅴ. 나를 알아봅시다.

1. 탐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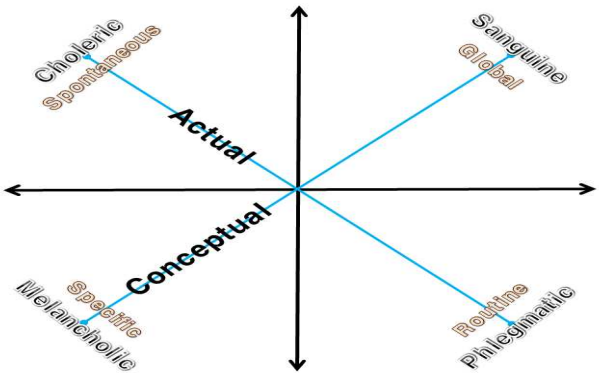


2. 나는?

유 형	규 범	행 동	탐 구	이 상
수 준				

3. U&I 이론적 배경

- David Keirseys
- Keith Golay
- 학습관련 장애요인이 없음에도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원인과 해법마련에 주력



Ⅵ. 4가지 기본 성격에 따른 행동특성 및 학습지도

1. 행동형 학습양식

행동형 아동은 몸으로 직접 부딪혀서 배워야 한다. 자기 손으로 직접 하는 체험을 필요로 한다. 활동과 경쟁을 통해서 성장하며, 모험을 하기 좋아하고 실제로 해보기를 좋아한다. 이들은 매일 반복되는 틀에 얽매이기를 매우 싫어한다. 어떤 틀에 묶어두려고 하면 반발심이 증가되고 결국 결석을 하거나 교실에서 제멋대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대개 책상을 두드리거나 옆자리 아이들을 찌르거나 시끄럽게 발을 질질 끄는 등 산만하다. 중등학교 학력검정고시 준비생들 중에서 행동형 아동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행동형 아동은 종이와 연필을 가지고 하는 공부에 매우 지루해 한다. 대개 강의나 소크라테스식 문답식의 수업을 싫어하며 수련장이나 각 장의 끝에 있는 정리문제 풀기도 싫어한다. 또한 숙제하는 것도 매우 싫어하는데 이들에게 있어서 숙제는 교사-아동, 교사-아동간의 갈등의 소지를 제공할 뿐인 경우가 많다.

행동형 아동은 음악·연극·미술·공예·기계학·건축 등이나 그 밖의 활동적인 과목들을 선호한다.

가. 주요 행동 특성

1) 활달하고 거침이 없다.
2) 머리가 좋고 두뇌 회전이 빠르지만 참을성은 없다.
3) 솔직하고 투명하다.
4) 변덕스럽게 보이지만 순발력이 뛰어나다.
5) 의리에 죽고 의리에 산다.
6) 직설적이고 화끈하다.
7) 스케일이 크다.

나. 행동형의 일반적인 학습 지도 방식

1) 용맹한 아이로 키워라.
2) 사람들과의 관계의 폭을 넓혀 주라.
3) 감각적인 사고를 길러 주어라.
4) 꿈과 희망을 크게 갖게 하고 자유롭게 날게 하라.
5) 공부를 할 때 흥이 나고 신이 나게 하라.
6) 짧은 시간에 집중하도록 하라.
7) 리더가 되게 하라.
8) 작심삼일을 사흘에 한번 하게 하라.

2. 규범형 학습양식

규범형 아동은 권위적인 인물(부모, 교사 등)의 마음에 들기를 바란다. 이들은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를 몰라도 부모나 교사가 하라고 했다는 이유만으로도 공부를 할 충분한 조건이 된다. 좋은 공부 습관, 숙제 제때 해내기, 지시대로 학과공부하기 등을 중시한다.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학급에서 더 잘 적응하며 체계적인 것을 좋아한다. 즉, 이들은 교사와 학생이라는 상하관계가 뚜렷한 학급에서 더 잘 적응하며, 명확하게 지시를 받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때 최선을 다한다.

이들은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하며, 규칙을 준수하는데 매우 뛰어나다. 부모나 교사로부터의 질책이나 비난도 잘 수용하고 자신의 행동을 수정하려고 노력한다.

규범형 아동은 강의식이나 교사의 지도아래 질문하고 대답하는 전통적인 교수방식을 선호하며, 대체로 학교를 좋아하고 교사가 일관성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기만 하다면 학교생활이 순조롭다.

가. 주요 행동 특성

1)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하다.
2) 규칙과 원칙을 중시한다.
3) 상처를 깊이 간직한다.
4) 한 번에 한 가지씩 한다.
5) 조금씩 받아들이지만 오래 기억한다.
6) 존중 받아야 성장한다.

나. 규범형의 일반적인 학습 지도 방식

1) 단계적으로 준비시키라.
2) 좌절을 경험하지 않도록 하라.
3) 아이와 함께 실패를 분석하라.
4) 존중받는다는 것을 느끼게 하라.

3. 탐구형 학습양식

탐구형 아동들은 능력에 대한 갈망이 있다. 이들은 알아야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 알지 않으면 안되며 알아야하는 것들도 많다. 무엇이든지 이해하고 설명하고 예언하고 통제할 수 있기를 원한다. 탐구형 아동은 규칙과 원리들을 많이 알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규명해내고 자기 나름의 생각을 전개시켜 나가기를 즐긴다. 늘 지적인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으며, 남자 아동의 경우 어릴 적부터 과학기술에 관심을 둔다.

탐구형 아동은 독자적으로 공부하는 경향이 있으며, 자기의 영감을 추구하고 이해하고자하는 자기의 욕구가 충족될 때까지 새로운 사실들을 추적하기를 좋아한다. 때때로 이러한 특성 때문에 관심이 없는 과목들을 소홀히 하여 낙제 점수를 받기도 한다.

탐구형 아동은 학급에서 외톨이일 가능성이 높은데, 특히 내향적인 탐구형 아동일 경우에 더욱 그렇다. 이들은 사회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자신의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쉽게 감정을 표출하는지에 대해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알아채지 못하는 편이기 때문에 종종 본의 아니게 남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실수가 많다.

가. 주요 행동 특성

1) 알고 싶어하는 게 많다.
2) 깊이 생각한다.
3) 생각이 끝없이 뻗어나간다.
4) 좋아하는 일에 푹 빠진다.
5) 신중하게 결정하나 후회하지 않는다.
6) 또래들에게 무관심하다.
7)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한다.

나. 탐구형의 일반적인 학습 지도 방식

1) 핵심과 원리를 가르쳐라.
2) 논리성을 인정하고 마음놓고 질문하게 하라.
3) 멀티가 가능한 아이로 길러라.
4) 공부 잘하는 사람과 함께 공부하게 하라.
5) 가볍게 생각하는 습관을 길러 주어라.
6) 폭넓게 알려 주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과 관련시켜라.

4. 이상형 학습양식

이상형 아동은 자아실현을 갈망한다. 이들은 “훌륭한 사람”뿐 아니라 “자기자신”이 되기를 원한다. 이들은 인격적인 관계형성을 원한다. 적개심이나 다툼에 대해서는 지나칠 정도로 민감하며 이러한 종류의 긴장에 노출되면 때때로 신체적인 질병을 일으키기도 한다. 이들은 인정과 보살핌과 개인적인 관심이 상호간에 주고받음이 이루어지고, 자신의 감정적인 자세를 인정받을 때 잘 성장한다. 따라서 이상형 아동에게 있어서 교사가 자기 이름을 알고, 자기를 알아주고, 이해해주며, 인정해준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상형 아동은 마주보고 대화하는 데서 더 잘 배우며 민주적인 학급에서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좋아하고 남들을 즐겁게 하는 것을 좋아한다. 또 자기 자신의 감정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도 민감하고 모든 것을 사회적인 상호작용의 관점에서 생각한다. 이들은 사회적인 상황을 개선하여 보다 즐겁고 유익한 것으로 만들고자 한다.

내향적인 이상형 아동은 종종 고통스러울 정도로 부끄러움을 타므로 같은 학급의 친구들과 허물없이 지내도록 용기를 북돋아줄 필요가 있다. 이들은 거부당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친구를 사귈 수 있도록 격려와 도움이 필요하다. 이상형 아동은 과학이나 경영학 같은 비교적 추상적인 과목보다는 인간에 초점을 맞춘 과목을 선호한다.

가. 주요 행동 특성

1) 끊임없이 감상에 빠진다.
2) 진정한 인간관계를 원한다.
3) 마음이 여리고 따뜻하다.
4) 용서하고 기다릴 줄 안다.
5) 칭찬을 받아야 성장한다.

나. 이상형의 일반적인 학습 지도 방식

1) 상상력을 높여 주라.
2) 주변 사람들을 이용하라.
3) 기분을 맞춰주라.
4) 신뢰하고 인정해 주라.
5) 작은 일에도 칭찬하라.

Ⅶ. 이야기를 마치며

.

.

.

아이들이 아직 사자로 보이지 않는 것은…
그들 속에 자리 잡은 사자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눈높이를 맞추고 기다려주는 저학년 학급운영

한 진 아
(남원노암초등학교 교사)

Ⅰ. 학급 운영 터 잡기

1. 새 학년 첫 만남

저학년 아이들은 생활의 장이 갑자기 바뀌면 불안해하거나 긴장하여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교사의 표정과 말 한마디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교사에게 받는 사랑과 관심, 학습방법이나 환경은 앞으로 학교생활과 학습에 대한 태도나 자신감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서두르지 않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기다려주고 보아 주는 것, 첫 만남을 준비하며 저학년을 맡은 담임교사가 새겨야 할 다짐이다.

가. 담임 발표에서 개학 전 까지

(1) 학년에 따라 다른 설계도가 마련되어야 하듯이 새 학급에 대한 다짐을 글로 정리하다 보면 첫날 아이들과 나눌 수 있는 약속인'학급 운영 계획서'세울 수 있다.

(2) 지난 해 담임을 통하여 아이들의 특성(알레르기 체질이나 장애 유무 등)을 듣고 배려해야 할 아이를 살피되, 잘못된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한다.

(3) 교실을 둘러보고 책상과 의자 점검한 후 사물함 및 신발장에 이름표를 붙여 첫날 저학년 아이들이 당황해 하지 않게 안내해주고, 칠판에 환영 인사 붙여 두는 것도 좋다.

(4) 학년 진급 아직 낯선 저학년 학부모님들인 만큼 새 담임에 대한 궁금증도 크기 때문에 간단한 신상 소개 및 교육관, 학급 운영 방침에 대한 인사글을 보내는 것이 좋다. 학급운영계획서는 실태분석을 토대로 수정하여, 학부모총회 시 안내하는 것이 적절하다.

나. 설레는 첫 만남, 친절한 안내로 열기

(1) 아이들 눈높이에 맞추어 간단한 이야기 자료, 선생님 신상 맞추기 등으로 선생님을 소개하고, 아이들의 이름을 다정히 불러 주고 마치는 시간에 안아 주는 것도 신체 접촉을 좋아하는 저학년에게는 긴장을 풀어줄 수 있다.

(2) 키를 고려하여 임시로 자리를 정하되, 특별히 배려할 친구가 있는 지 유의한다.

(3) 새 학년에 대하여 저학년에서는 선생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정도를 눈빛이나 말의 속도에 유의하며 쉬운 단어를 사용하여 이야기 한다.

(4) 첫날 학부모가 찾아오면 자리 배치, 등굣길 위험한 곳 등을 간단히 안내해 드린다.

다. 첫 일주일 나기

(1) 우리반 급훈 : 교사의 학급 운영 철학과 교육관을 포괄하는 개념과 학급 안에서 지켜야 할 약속을 큰 틀에서 규정하는 지침이 필요하다.
예)마주보는 눈! 칭찬하는 입! 잡아주는 손! 함께 하는 발!

(2) 학급약속 정하기 : 꼭 필요한 것만 정해서 아이들이 늘 머릿속에 담아둘 수 있도록 하되, 저학년의 경우는 자율성보다는 선생님의 관여가 필요하다. 벌을 내세우지 않도록 하고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하는 약속도 좋다.
(3) 우리반 노래 정하기 : 학급행사나 마치는 시간에 함께 부르고 헤어지면 학급공동체의 의미가 새록새록 되살아나므로 자주 부르도록 한다. 노가바 활동을 통해 함께 만들 수 있다.
(4) 자리 정하기 : 3월 한 달 고정자리를 통해 아이들을 파악하고 배려가 필요한 아이를 고려한 자리 배치를 한다.
(5) 학습 준비물 챙기기 : 계획을 세워두었다가 안내장을 보내 학부모의 이해를 구하고 학년 내내 쓸 준비물을 일주일에 걸쳐 준비하도록 한다.
(5) 각종 학부모 통신 전달 및 확인을 꼼꼼히 해야 한다.(A4 얇은 파일 철 활용)
(6) 1학년 3월 : 규칙에 맞춰 소개하기, 소근육 발달을 돕는 활동, 몸 움직이기, 글자 익히기, 책 읽어 주기, 학습도구 바르게 쓰기, 제자리 정리 정돈 반복 지도
(7) 학급 누리집 정비 : 저학년 아이들과 1년 동안 소통할 공간으로
(8) 하루 생활 돌아보기'알찬 하루 일굼' : 학급 약속과 함께 기록하는 법을 안내하고 한 달 동안 꼼꼼히 지도하여 익숙해지도록 한다.
(9) 독서기록 '책 속에서 자라는 생각나무' : 권장도서 목록을 붙여 두고 수시로 확인해 주도록 한다.

라. 아이들 읽기
(1) 저를 소개합니다 : 아이의 자신에 대한 생각 읽기
(2) 선생님께 알려드리는 우리 아이 이야기 : 부모님의 교육관, 아이에 대한 태도, 가정 분위기 읽기
(3) 두 가지 설문에 대해 면밀히 분석한 후 학급교육과정 학급 실태 분석 및 학부모 상담, 학생 상담 자료로 활용한다.
(4) 친해지기 놀이와 평상 시 수업을 통해 아이의 습관이나 숨은 성격, 교우관계. 독서 및 학습 수준을 파악해본다.
(5) 선생님의 엄격한 태도보다는 사랑으로 대하되, 원칙을 지키고 진심을 담은 말 한마디로 아이들과 한 반이 되도록 한다.

2. 짜임새 있는 학급 조직

저학년과 고학년은 모든 면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르다. 고학년에서 학급임원은 학생주도적인 활동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로서의 역할의 의미가 크다면 저학년에서 학급임원은 역할놀이로 대표성을 경험하고 역할을 맡아서 성취감을 맛보게 하는 것에 의미를 둘 수 있다.

가. 반장 선거 익히기

3월 반장 개회사부터 폐회사까지 반장선거의 과정을 가르쳐주고, 학급 협의의 과정으로서 반장선거 과정을 학습해보는 정도의 의미를 두고, 새로운 달 반장 선거를 현재 반장들이 진행해 보면서 모든 학생이 학급 협의의 형식을 익히도록 하는데 의미를 둔다. 2학기에는 학급 활동 중에 협의를 필요로 하는 주제를 정해 간단한 협의를 스스로 해보도록 기회를 주어 고학년의 학급 협의 활동을 경험해 보도록 한다.

나. 학급 도우미 역할을 통해 성취감 맛보기

학급 생활에서 작은 대표 역할을 하루씩 돌아가며 맡아 보도록 하여 심부름이 나 유인물 나누어주기 등의 작은 일이라도 해냈다는 성취감을 모든 아이들이 느껴볼 수 있도록 고루 기회를 준다.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이 뭔가를 해냈다는 보람을 느끼는 경험이 중요하다.

다. 모둠 살이 천천히 일깨우기

(1) 모둠활동의 목표는 ‘경험’

저학년 아이들에게 고학년 아이들 하듯이 ‘학급 자치’나 '자발성'같은 목표를 두면 교사도 아이들도 힘들다. 또한 모둠 내 역할도 처음에 안내하고 혼자서는 못하는 일을 여럿이 해내는 경험의 수준이면 된다. 모둠으로 움직이며 관계의 폭을 조금씩 넓혀 가는 것이다.

(2) 모둠 구성 및 역할 순환

저학년은 자유롭게 모둠의 이름을 아이들끼리 협의해서 짓는 것도 너무 많은 시간이 소비되므로 연중 부를 수 있는 이름이나 모둠 내 역할을 정해두는 것이 좋다. 구성된 모둠은 한 달 정도 유지하는 것이 4명이 일주일씩 역할을 고루 경험하기에 적합하다.

(3) 학습 활동을 위한 모둠 짓기

수업 시간에 교과 내용에 따라 모둠을 짓거나 풀어 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관계를 맺어 보고, 과제도 함께 해결하면서 모둠 살이를 조금씩 경험해 보게 한다. 저학년 즐거운 생활과 슬기로운 생활에서는 모둠을 지어 학습할 수 있는 내용이 아주 많다. 국어과에서도 ‘서로가 쓴 글을 돌려 읽고 평가해주기’ 등을 통해 잘 쓴 친구의 글을 대신 발표해보게 할 수도 있다.

(4) 모둠활동, 하나하나 자세히 안내하기

저학년 아이들과 모둠활동을 할 때는 과제나 활동, 순서나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주어야 한다. 작은 공동체 생활에서 의견을 조정하고 협동하는 과정을 배우는 걸음마 단계이므로 의견이 맞지 않을 때 의견을 조정하는 법 등 하나하나 자세한 안내와 반복 훈련이 필요하다.

라. 청소 구역 정하기

아이들과 학급에 꼭 필요한 활동을 정한 후 학급 인원수에 맞게 역할을 조정하고, 모두가 고르게 해볼 수 있도록 규칙을 정한다. 저학년의 경우 각 청소구역의 청소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고, 한 달에 한번 바뀌는 자리에 따라 청소구역이 정해지도록 하면 고르게 청소구역을 바꾸어 가며 청소할 수 있다.

3. 교실환경 가꾸기

교실은 교사와 아이들에게 학습 공간이자 생활공간이고, 놀이와 휴식 공간이다. 교실 환경을 ‘꾸미기’ 전에 먼저 생각해보아야 할 것은 아이들의 학습 효과를 높이면서, 아이들과 교사가 그야말로 편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 ‘가꾸기’와 ‘갖추기’다. 교사의 학급운영 철학이 반영되고, 아이들의 자유로운 활동과 표현을 장려하는 교실이 되어야 할 것이다.

4. 학부모 만나기

아이들과의 첫 만남이 중요하듯 학부모와의 첫 만남도 중요하다. 학부모는 교사가 하기에 따라 학급운영을 돕는 보조교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이들보다 한결 더 까다로운 교실 감시자로 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가. 학부모 첫 만남

(1) 안내장 보내기

(2) 설문지 분석을 통해 총회에 참석하지 못한 학부모님들의 의견 구하기

(3) 학부모 총회 : 담임 인사-학부모 소개-담임 이야기 시간-전달 사항-마무리

나. 1학년 초보 학부모 만나기

(1) 입학식 날은 단정한 차림과 웃는 얼굴로

(2) 교사와 학부모의 거리를 좁히기 위한 마음 전하기

(3) 학부모 총회, 친절한 설명으로 학교생활 안내하기

(4) 통보가 아니라 상의해서 학부모 참여 이끌기

(5) 도움을 받되 교사의 역할을 놓치지 않도록

(6) 자리 배치에도 분명한 원칙이 필요

다. 믿음을 주는 준비된 상담

우리 아이 이야기, 저를 소개합니다, 교우 관계 조사, 진단평가 결과, 물고기가족 그리기, 우리 가족 표현하기 등의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선생님이 아이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부모님들께 체계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상담을 꾸려야 교육 전문가로서 학부모님들에게 더욱 신뢰를 줄 수 있다.

Ⅱ. 일상 활동 꾸리기

1. 아침 시간 만들기

저학년 학부모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가방을 메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학교에 가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이 대견하다는 말을 많이 한다. 저학년은 준비물을 챙기고 가방을 메고 학교에 오는 활동 자체가 학교를 다니는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므로 매일 아침, 교사는 자기의 할 일을 하나하나 배워 가는 저학년 아이들을 좀 더 세심하게 맞아줄 필요가 있다.

가. 1학년, 학교 오는 행복 맛보기

(1) 보살핌을 받는 다는 느낌 주기-신발장에 신발을 넣고 제자리에 앉아서 준비물을 약속대로 정리하는 가를 유심히 보고 격려해준다.

(2) 작은 재미 나누기-칠판에 아침 편지를 써 놓아 기분을 좋게 해주며, 글자를 익히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

(3) 마주 보고 이야기하는 기쁨-저학년은 교사와 얼굴을 마주하면서 어제 있었던 이야기, 아침에 학교 오면서 있었던 이야기 등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많다.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며 아침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다.

나. 2학년, 교육과정과 연계한 아침활동 전개(예시)

(1) 월 - 사물함 및 책상 속 정리, 동시 노래 (2) 화 - 쑥쑥 똑똑 줄넘기

(3) 수 - 학습지 풀이 (4) 목 - 책 속에서 자라는 생각나무

(5) 금 - 받아쓰기 (6) 토 - 주제가 있는 줄줄이 발표

2. 수업으로 이어 가는 학급 운영

저학년을 처음 맡은 교사들은 수업에 매우 어려움을 느낀다. 수업 내용이 지나치게 활동 위주인데다가 아이들이 무엇을 배웠는지 아이들과의 만남을 소중히 하는 것만큼 좋은 수업을 하는 기쁨을 누리면서 교사로서의 자기 존재감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가. '배우는 방법'부터 안내하자

(1) 저학년 아이들은 집중 시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교사는 자기 반 아이들의 집중 시간을 점검해보고 이에 맞는 수업 시간와 활동 시간을 꾸려야 한다. 수업 짬짬이 몸을 움직이는 활동을 하거나 수업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놀이나 노래를 활용하는 것도 좋다.

(2) 저학년 아이들은 중요한 것을 써주지 않으면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잘 알 수 없고 기억하기는 더욱 힘들어한다. 정리하는 능력도 키우고, 글씨 쓰는 연습도 되므로 중요한 내용을 짧게 써보도록 한다.

(3) 저학년은 귀로 듣는 것보다 눈으로 보는 것을 좋아하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에 흥미와 집중을 보인다. 교과서 내용이 대부분 활동적이며, 지도서에 자료가 잘 제시되어 있으므로 교과서와 지도서만 잘 참고해도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조작할 수 있는 수업을 준비할 수 있다.

(4) 저학년 아이들은 발표하기를 아주 좋아하므로 어떤 방식으로든 골고루 발표 시키도록 하고 상대적으로 적게 발표한 아이를 배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5) 저학년 아이들은 교사가 하기 나름으로 아이들에게 금방 그 영향이 나타나므로 그 장면, 그 상황에 따라 적절한 칭찬을 자주 해주는 것이 좋다. 특히 행동 수정이 필요한 아이가 옳은 행동을 했을 때를 주시하여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다른 아이들의 주의를 집중시켜 칭찬하여 자신감을 키워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6) 내면화된 가치만으로 판단하여 행동하는 것이 어려운 초등학생의 경우, 붙임 딱지나 사탕 등 구체적인 보상물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그러나 저학년에게 그런 외부적인 보상을 남발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 보상물을 받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보상물을 줄 때는 반드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잘 얘기해주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도록 격려해야 한다.

나. 아이들 반응으로 학습 수준 살피기

(1) 하기 싫어요 - 자신감이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교사가 곁에서 거들어 주거나 손을 잡고 같이 해 주고, 아이가 어느 정도 하면 마무리 지어 주어 자신의 결과에 자신감을 갖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아직 못했어요 - 집중력이 부족하거나 글자를 빨리 못 쓰거나 교사의 말을 이해하지 못해 곧바로 활동에 들어가는 못하는 경우가 꽤 많다. 어떤 작업을 부분적으로만 따라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다시 설명해주되, 활동시간을 정해두고 짧게나마 집중하는 버릇을 들이도록 해야 한다.

(3) 재미 없어요 - 집중하는 시간이 짧은 저학년 아이들에게 40분 수업시간은 길게 느껴진다. 활동에 변화를 주어 단조로움에서 오는 지루함을 최대한 줄여 나가야 한다. 예를 들면 문자 익히기에도 꼭 연필로 써보는 것만 할 게 아니라 몸으로 글자 만들기, 운동장에 나가서 글자 쓰기 등으로 바꾸어 해볼 수 있다.

다. 학년 초 발표 습관 기르기

(1) 이야깃거리 미리 준비시키기
(2) 시간이 걸리더라도 모두에게 기회를 주기
(3) 자신의 발표 시기를 예측할 수 있도록 순서를 말해주기
(4)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할 때의 떨리는 마음을 미리 얘기해 주기
(5) 떨리는 마음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 알려주기(두 손에 힘주기 등)
(6) 비슷한 발표가 이어지면 지루하므로 중간에 평을 하여 주위를 환기 시키기
(7) 발표 보다 오래 듣기가 더 어려움을 알려주고, 듣는 태도에 대한 칭찬하기
(8) 발표가 끝난 뒤에도 다른 사람의 떨리는 마음을 생각하여 잘 들어주도록 하기
(9) 말하기 듣기 습관은 전 교과에 걸쳐 이루어지고 반복되도록 하기
(10) 친구들의 생각을 듣는 것이 내 생각을 키우게 하는 것임을 알도록 하기
(11) 아이들끼리 질문하고 답하는 기회를 주어 자연스럽게 생각 나누도록 하기
(12) 아이들이 발표한 내용을 인용하여 학습 내용을 정리하여 자부심을 갖게 하기

3. 내일을 준비하는 마침 시간

마침 시간도 수업 시간, 점심시간, 쉬는 시간처럼 하루의 흐름에 따라 유기적으로 이어져 진행된다. 하루의 매듭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 다음 날에 대한 기대가 달라진다. 종례와 청소, 하교 지도까지 하루를 알차게 맺는 지혜가 필요하다.

가. 마침 시간 꾸리기

저학년은 마침 시간에 정적인 활동보다는 움직임이 많은 율동이나 노래를 이용한 활동이 효과적이다. 예) 오늘의 칭찬 주인공 찾기, 우리반 노래 부르기

나. 작별 인사하기

하이파이브, 짝과 엉덩이 부딪치기, 윙크하며 인사하기, 교사가 문에서 안아주기 등 다양한 방법의 인사로 하루를 즐겁게 마무리 할 수 있다.

다. 하교지도

1학년의 경우 교문이나 학교 앞 횡단보도까지 동행하는 것이 좋다. 저학년 하교지도는 아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고학년보다 신경 써야 한다.

라. 숙제와 알림장

저학년에서는 숙제를 매일 조금씩 내주는 것도 규칙적인 생활 습관 형성에 좋다. 숙제가 있어야 알림장을 매일 확인한 후, 숙제를 마치고 준비물 등을 챙긴 후 책가방을 챙겨두는 습관을 반복하는 데 효과적이다. 또한 숙제를 제시할 때는 구체적으로 세심하게 설명하고 고스란히 학부모의 숙제가 되지 않도록 한다.

4. 생활지도와 상담

사회성이 아직 여물지 않은 저학년 생활지도는 올바른 사회생활의 바탕을 배우는 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 생활지도의 기본 원칙은 고학년의 경우와 다르지 않으나 저학년은 경험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회성의 근간을 이루는 행동이나 언어를 처음부터 배워야 한다.

가. 자기를 표현하는 법 가르치기

(1) 노는 방법 가르쳐 주기 - 혼자 노는 아이, 자 어울리지 못하는 아이들은 교사가 함께 놀면서 아이들과 어울리도록 배려해 주다가 슬그머니 빠져서 아이들끼리 잘 어울릴 수 있도록 한다.

(2) 마음을 말로 표현하는 방법 알려 주기 - 저학년 아이들은 공연히 친구를 건드려서 싸움을 일으키기도 한다. 그럴 때는 왜 싸웠는지, 싸우는 과정에서 어떤 마음이었는지 다같이 둘러 앉아 말로 표현해보도록 진행한다. 같이 놀고 싶어서 그랬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때는 '나랑 공기놀이 하고 놀자' 이렇게 말하는 연습을 시킨다.

나. 이야기 들어주기에서 시작하는 상담

(1) 아이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자 - 저학년 아이들은 수업 중에도 서로 자기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그리고 그저 이야기하는 것, 선생님이 자기의 사정을 아는 것만으로도 만족감을 느끼기도 하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하며 학교생활을 잘해 나간다. 아이들이 말을 걸어올 때는 아무리 바쁘더라도 귀를 기울여 주는 것이 중요하다.

(2) 학부모 상담을 활용하자 - 사회적 의사소통 훈련이 도어 있지 않은 저학년 아이들에게서 많은 정보를 이끌어 내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아이의 생활을 알고 싶거나 보살핌이 필요할 경우에는 학부모 상담을 해보는 것이 좋다. 학부모 상담 전에는 아이에 대해 유심히 살펴보고 학부모와 함께 정보를 공유한 다음 교사가 필요로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 좋겠다.

(3) 글쓰기와 그림 그리기를 활용하자 - 차분히 앉아서 대화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저학년 아이들에게는 그림을 그려 보게 하거나 글을 써 보게 하는 것도 좋은 의사소통 방법이다. 평소 아이들의 글이나 그림을 살피는 것도 좋다.

다. 부적응아와 관계 맺기

마음이 아픈 아이든, 몸이 아픈 아이든 교사의 노력만으로 안 되는 경우도 있다. 행동 수정이 쉽지 않거나 대화가 잘 안될 때는 교육전문가로서의 학교생활에 대한 객관적인 의견을 부모님께 이야기하고 유관기관을 알려 도움 받을 것을 권유해야 한다. 아이의 행동 관찰에 대한 누적 기록 자료가 있으면 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

Ⅲ. 학급 문화 가꾸기

1. 빛깔이 있는 교실 만들기

가. 글쓰기 지도

(1) 토요일 주제 글쓰기를 통한 줄줄이 발표

학년 초에 계획을 세워 주제 정도는 미리 생각해 두는 것이 좋다. 하지만 좋은 글이 나올 법한 순간을 잘 잡아 주저 말고 글을 쓰게 하는 순발력도 필요하다.

(2) 월요일 시 노래 익히기

아이들에게 '동시'가 아닌 '어린이 시'를 본보기로 보여 주기

나. 소통, 삶을 가꾸는 일기 쓰기

(1) 일기를 쓰면 글을 쓰는 힘이 생긴다는 말은 맞다. 하지만 일기를 쓰면서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것이지 목표여서는 안 된다.

(2) 한두 줄을 써도 하고 싶은 말을 다 쓰면 된 것이다. 다만, 사건을 쓸 때는 자세히 쓰도록 한다. '재미있었다'가 아니라 '재미있었던 이야기'를 쓰도록 한다.
(3) 생각이나 느낌을 나타내는 말을 쓰지 않아도, 사실 그대로를 써도 마음이 읽어 지는 일기도 있다. 생각이나 느낌을 쓰도록 억지로 강요하지 않아야 한다.
(4) 어린이 인권의 측면에서 아이가 선생님이 보지 않았으면 하는 일기는 덮개를 가리는 등의 표시를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5) 1학년의 경우 그림일기를 많은 아이들이 부담스러워하며, 글자가 부족하고 서툴더라도 아이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면 충분하다. 모르는 글자는 생각대로 쓰고 동그라미를 해 두어 표시할 수 있다.

다. 그림, 가르치지 말고 읽어 주기

그림 그리는 것 이렇게 저렇게 자꾸 간섭하면 아이가 점점 그림 그리는 일에서 좌절을 겪고 도망가게 된다. 간섭보다는 존중이 필요하다. 아이들의 표현을 존중하고 그림에 나타난 아이의 이야기를 읽어주어야, 그림 그리기는 재미있는 놀이가 되고 자기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수단이 된다.

라. 책 읽어주는 선생님

저학년 아이들은 특별한 지도가 없어도 선생님이 책을 읽어주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학교에서 자연스럽게 책과 친해질 수 있도록 자주 읽어 주고, 학급의 공동 관심사나 이야깃거리를 책 활동과 연결 시켜 보는 것도 좋다

2. 마무리 활동

마무리에서 중요한 것은 아이들과 교사가 서로의 만남을 통하여 얼마나 성숙했는가를 성찰하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분기점으로 삼는 것이다. 표현이 서툰 저학년 아이들이지만 일 년 동안 지나온 학급활동에 대해 의견을 말할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해 귀를 기울여야 한다.

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행사탑 만들기

저학년의 마무리 활동은 대부분 유치원 때 해 보았던 '재롱 잔치'의 연장인 듯한 느낌이 든다. 마지막 시점에 장기를 하나씩 발표해보고 성취감을 맛보는 것도 좋지만, 교과와 연결해 1년을 되돌아보면서 마무리 하는 것도 좋다.

2학년에서는 슬기로운 생활과 연계하여 우리반에 있었던 일들 중에 기억에 남는 일들을 10가지 정도 뽑아 서로 나누어 신문을 만들어 보거나, 다함께 순위를 정해 행사탑으로 쌓아 보면서 한 해를 마무리 할 수 있다. 아이들이 10가지 행사를 뽑는 과정을 통해 표현되는 아이들의 의견을 평가로 받아들이고 새 학년 새로운 시작을 위한 마음가짐을 달리 해야 할 것이다.

나. 한 해 마무리 문집 만들기

1년 동안 일기나 쓰기, 시 쓰기 등의 교육활동을 통해 얻어진 결과물을 정리해 문집으로 엮을 수도 있다. 문집에 넣을 것들을 선정하고 어떤 방법으로 만들 것인지 아이들에게 자세히 안내해 주고 함께 제목을 짓거나 간지에 들어갈 그림을 나누어 그리는 등 역할 분담을 하여 완성하면 아이들에게 더욱 의미 있는 문집이 된다.

※참고서적 우리교육 <초등 학급운영> 1,2,3권

즐거운 수업을 위한 협동학습

최 한 성
(이리부송초등학교 교사)
actschs@naver.com

Ⅰ. 협동학습의 개념

1. 협동학습의 정의

Kagan은 “협동학습은 교과에 관한 학생간의 협동적인 상호작용을 학습과정의 부분으로 받아들이는 일련의 교수전략이다.” 라고 하였고, Slavin은 “학습능력이 각기 다른 학생들이 동일한 학습목표를 향해 소집단 내에서 함께 활동하는 수업방법”으로 정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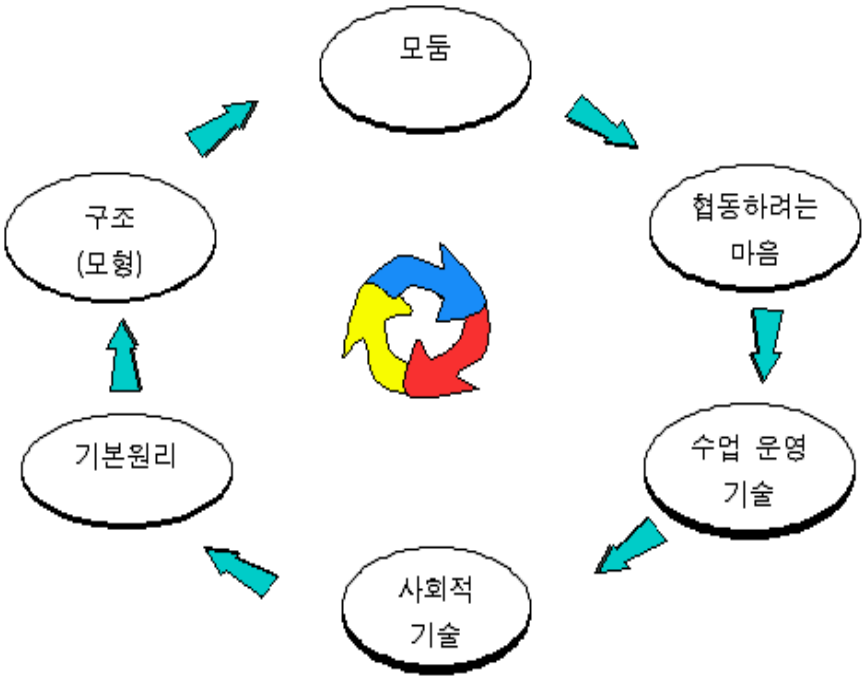
2. 협동학습의 필요와 장점

협동학습이 제대로 적용된다면 학습성취 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서적 발달에도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정문성·김동일, 1998). 협동학습에서는 수업방법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모둠 구성, 운영기술, 생활 지도측면인 사회적기술, 보상 및 평가 등 학급운영의 총체를 모두 다루고 있다. 협동학습의 장점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이 말할 수 있다.

· 수업이 재미있고 학습의욕이 높아진다. 학습동기가 자연스럽게 고취된다.
· 시너지 효과를 통해 교과에 대한 지식이 증대한다. 학업성취도가 크게 향상된다.
·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하여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폭이 넓어진다.
· 의사소통 기술과 사회적 기술이 발전한다.
· 부정적 체벌보다 긍정적 보상으로 학습의욕을 고취한다.
· 학생들이 수업을 통하여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질 수 있다.
· 학생이 수업 중에 신체를 많이 움직일 수 있게 된다.
· 학생들의 숨어있는 다양한 재능을 개발하고 격려해 줄 수 있다.
· 협동학습은 교사에게 다양한 수업전략을 제공해 준다.

Ⅱ. 협동학습의 6가지 기본 열쇠

협동학습으로 교실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려면 무엇보다 협동학습의 6가지 열쇠를 알아두어야 할 것이다.(Kagan, 1993) 케이건이 제시한 협동학습의 6가지 기본열쇠를 중심으로 협동학습을 실천하는 데 필요한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협동학습의 6가지 열쇠>

6가지 열쇠를 전체적인 흐름으로 살펴볼 때 서로 상관없는 요소가 아니라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협동학습의 6가지 열쇠를 잘 알고 실천할 수 있다면 교실에서 협동수업을 성공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1. 모둠 (Team)

일반적인 '조'와는 달리 소속감이 강하고 일정기간동안 지속되며, 모두미(조원들) 사이에 강하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집합을 이야기한다. 이상적으로는 한 모둠에 4명의 모두미가 적당하다.

학생 스스로가 원하는 친구들과 모둠을 구성할 수도 있고, 제비뽑기나 우연에 의해 모둠을 구성할 수도 있으며, 교사의 치밀한 배치로 구성할 수도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성별, 성격, 학업능력이 각기 다른 학생들이 모여 구성된 이질 모둠을 권한다.

교사가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구성한 모둠이라면 다소 오랜 기간 유지해도 괜찮다. 그러나 아무리 협동이 잘 되는 모둠이라 하더라도 5~6주에 한 번은 모둠을 바꾸는 것이 좋다. 학생들은 새로운 상황에서 다양한 성품의 아이들과 어울려 공부하는 것을 배우는 경험을 누려야 하기 때문이다.

이질적인 모둠	무작위 모둠
교사 주도적인 모둠 배치	퍼즐
① 성적순으로 학급명부 만들기 ② 첫 모둠 만들기 - 일등과 꼴찌 그리고 2명의 중간 등수를 선택하고, 그들을 한 모둠으로 배치하라 ③ 나머지 모둠을 배치하기	① 하나의 그림을 4부분으로 자른다. ② 돌아다니면서 서로 바꾸기 ③ 조각 그림 맞추어 4명이 같은 모둠이 된다. ※ 변형 : 속담, 시, 문장 등을 4부분으로 나누어 해도 된다.

2. 협동하려는 마음 (Will)

가. 모둠 세우기

모둠 세우기 활동의 횟수, 형태 및 시기는 학생들의 특성과 필요, 교사의 신념에 의해 좌우된다. 교사들이 폭넓은 모둠 세우기 활동을 했을 때 학습외성과 뿐 아니라 학습 성취도 면에서도 좋은 결과를 나타낸다. 모둠세우기는 서로에 대해 알기, 모둠 정체성, 상호지원, 차이점 존중하기, 시너지 개발의 5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다.

1) 서로에 대해 알기
- 모둠 인터뷰 : 모두미들은 정해진 시간 동안 돌아가면서 서로를 인터뷰한다.

2) 모둠 정체성
- 모둠 이름, 구호, 노래 등

3) 상호 지원
- 장님 애벌레 : 모두미들은 눈을 감고 앞사람의 옆구리를 잡고 돌아다닌다.

4) 차이점 존중하기
- 내가 좋아하는 것은? : (개·고양이, 바다·산, 멜로·액션)

5) 시너지 개발
- 돌아가며 쓰기 : 장님들의 그림

나. 학급 세우기

학급 세우기는 같은 반의 모든 학생들 간에 연관 관계를 돈독히 하고 활동을 통해 긍정적인 환경을 창조해내는 활동이다.

1) 이 사람을 찾아라.
- 친구 찾기 : 좋아하는 영화, 음식 등 먼저 자기에 대한 내용을 모두 적은 다음, 자신과 같은 성격이나 유형을 가진 친구를 찾아낸다.

2) 나는 누구일까요?

① 그림이나 이름카드를 학생들 자신이 보지 못하도록 등에 붙인다.

② 학생들은 자기 등에 붙어 있는 것을 알아내기 위해 돌아다니면 만나는 친구에게 "예" 나 "아니요"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 세 가지를 한다.

③ 서로 역할을 바꾸어 대답해 준 사람이 본인 것에 대해 세 가지 질문을 한다.

④ 등에 무슨 카드가 붙어있는지 맞힐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한다.

⑤ 등에 붙은 카드를 알아맞히면 그 카드를 떼어 확인시켜준다.

3. 수업운영기술 (Manage)

가. 침묵신호

- 3～5초 정도가 적당(시간이 오래 걸리면 다시 설명)
- 학생과 교사의 약속이 중요, 다양하게 할 수 있음(박수...)

나. 좌석배치

- 학업 등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이 바로 옆에 앉으면 사회성이나 학업면에서 떨어짐

다. 질문

- 모둠 질문만 허락한다.
- 먼저 옆 짝에게 질문하게 한다.
- 다음 앞 짝에게 질문하게 한다.
- 아무도 모르면 4명이 모두 손을 든다.
- 다른 모둠은 계속 활동한다.

라. 학습자료

- 모둠의 한 사람에게 도움 자료를 준다.

4. 사회적기술 (Social Skill)

사회적 기술이란 학생들끼리 서로 배려해 나가며 대인 관계를 맺어나가는 기술을 의미한다. 학생들에게 협동하려는 마음이 있어도 어떻게 해야 남을 배려하는 것인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다. 협동학습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기술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우선 사회적 기술 자체를 강조해서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 칭찬샤워 - 한 학생을 모든 학생이 돌아가면서 칭찬한다.

5. 기본원리 (Principles)

기본원리	설 명	행 동
긍정적인 상호의존 Positive Interdependence <관계>	“네가 잘 돼야 나도 잘 돼” “너의 이익이 나의 이익이고 나의 이익이 너의 이익이야” 한 학생의 성과가 다른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학생들은 서로 도우며 학습하게 된다.	
개인적 책임 Individual Accountability <학습자>	“내 할 일은 내가 책임져요" “개인적인 역할과 책임은 분명하게” 한 사람이 몽땅 일을 해 버리는 ‘일벌레’나 그 반대의 ‘무임승차자’가 생기지 않도록 개개인에게 책임이 부여된다.	
동등한 참여 Equal Participation <학습자>	“너도 하고 나도 하고 골고루 참여하자” "우리 모두 다같이 참여해요" 모둠원들 모두가 고르게 참여할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이다.	
동시다발적 상호작용 Simultaneous Interaction <관리>	“동시다발적으로 여기저기서” “모두 다같이 주고 받아요” 한 순간의 능동적 참여자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배움의 양이 많아지게 된다.	

6. 구조(Structure)

구조는 교실 안에서 학생들 사이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조직화하는 방법이다. 학습은 내용(무엇?)과 구조(어떻게?)라는 두 가지의 중요한 요인들의 상호작용으로 이뤄진다. 구조적 협동학습에는 학습 지도를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표시하곤 한다.

<구조> + <내용> = <학습>

가. 암기숙달구조 - 배운 내용을 암기 숙달하기에 좋은 구조

1) 부채모양뽑기

· 1번 학생이 문제카드를 부채모양으로 펴들고서 말한다. “아무거나 한 장 뽑으세요”

· 2번 학생은 카드를 뽑고, 문제를 큰 소리로 읽은 후 셋을 센다.

· 3번 학생이 그 문제에 답한다.

· 4번 학생이 답에 대해 점검한다. (칭찬, 보충, 격려)

예) 음식, 가족, 취미, TV, 애완동물 등, 인물에 대해서, 형성평가

2) 짝 점검

·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는 문제를 제시한다.

· 1번 학생이 문제를 푼다. 2번은 지켜보면서 가르쳐주거나 칭찬을 해준다.

· 다음 문제는 2번이 문제를 풀고 1번은 지켜보면서 가르쳐주거나 칭찬을 해준다.

예) 수학 - 평행사변형 넓이 구하기, 자로 길이 재기, 수학문제 풀이에 좋다.

국어 - 묘사하기

3) 번호순으로

· 각자 번호를 부여 받는다.

· 교사가 문제를 내고 함께 해결하도록 지시한다.

· 학생들은 머리를 맞대고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서로 가르쳐준다.

· 모든 학생들이 답을 알고 충분히 토론을 한다.

· 교사는 한 번호를 부른다. 각 모둠에서 해당 학생들이 일어나 답을 한다.

· 응답한 학생을 격려해준다.

예) 국어 -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외국어 찾기

나. 사고력신장구조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해 통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돕는 구조

1) 분류하기

· 교사가 모둠원에게 두 장씩 카드를 지급한다.

· 모둠원은 주제에 해당하는 단어를 두 개씩 기록한다.

· 모둠원 중 한 명은 여덟 장의 카드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개 또는 세 개로 분류하고 다른 모둠원은 그 분류기준을 찾도록 한다.

예) 과학 - 동식물 분류하기 국어 - 악기, 운동 분류하기

2) 문장만들기

· 교사는 주제를 알려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

· 짝을 지워 그들의 생각을 토론한 다음 주제를 한 문장으로 나타낸다.

· 개인적으로 쓴 문장을 아무 비평 없이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읽는다.

· 각자 개인적으로 발표한 문장에 대하여 토론하고 각자의 생각에서 참신한 요소를 뽑아낸다.

· 그리고 이를 정리하여 한 문장으로 만드는 것이다.

예) 행복이란 _____ 이다.

다. 의사소통구조 – 협동학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의사소통 향상 구조

1) 3단계 인터뷰

· 두 사람씩 짝을 지은 후 상대방을 인터뷰 한다.

· 서로 역할을 바꿔 인터뷰 한다.

· 돌아가며 말하기를 이용해 인터뷰를 통해 알게 된 것을 모둠에게 이야기 한다.

예) 수업이 마치고 난 소감을 인터뷰를 통해 말한다.

라. 정보교환구조 – 모둠 내, 모둠 간 정보를 교환하는데 도움이 되는 구조

1) 셋 남고 하나가기

· 모둠활동 후 나온 결과물을 정리한다.

· 한 명이 대표로 다른 모둠으로 간다.

· 다른 모둠에서 발표한다.

2) 돌아가며 말하기

· 교사는 다양한 답이 있는 질문 또는 주제를 제시한다.

· 모둠 별로 학생들은 정해진 시간 안에 자신들의 생각을 돌아가면서 말로 표현한다.

예) 소원이 있다면? /서로에 대해서 알기/ 3배수 말해보기

Ⅲ. 협동학습을 적용하기 위해 고려할 점

협동학습모형은 절차와 활동이 구체적이고 구조화되어 있어 쉽게 현장에 적용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교사들이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전통적인 수업 방법에 익숙한 교사와 학생들에게 갑자기 전혀 다른 형태의 수업방식을 적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협동학습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를 주의깊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무엇보다 교수 학습 방법에 있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인식 전환과 협동학습에 대한 신념이 필요하다.

둘째, 교사의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셋째, 교사는 협동학습으로 해결할 과제를 엄선하여 이를 주어진 수업시간 내에 소화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과제를 재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교사가 학생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수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적절한 경쟁 요소를 도입하여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섯째, 교사가 수시로 협동하는 방법이나 의사소통기술 등 사회적 기술을 직접 가르쳐야 한다.

독서교육을 통한 교실수업개선

서 기 문
(용안초등학교 교사)

Ⅰ. 시작하며

1. 교육철학을 세우자

뉴스에서 전해오는 학생들의 자살 소식은 들을 때마다 가슴을 철렁하게 만든다. 최근 고3학생의 친모 살인사건부터 대전의 여고생 자살사건, 대구의 중학생 자살 사건까지 가슴을 답답하게 만드는 소식이다. 한국청소년의 자살은 전체 사망률 중 교통사고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OECD국가 중 사회적 약자인 노인과 청소년이 자살하는 자살률 1위이다. 통계청의 '2011년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15~24세 청소년 사망원인 1위는 자살이었다. 인구 10만 명 당 청소년 자살자 수는 2008년 13.5명에서 2009년 15.3명으로 늘어났다. 청소년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행복하게 살 여건을 조성할 의무를 가진 부모와 선생님은 10대들의 고통을 덜어주는데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다. 청소년의 40.2%가 동성친구에게 고민 상담을 한다고 대답했고 고민 상담 대상이 없다고 응원한 비율도 13.9%나 나왔다.[1] 소통이 되지 않는 아이들은 점차 부모님을 멀리하고 또래에 집착하며 그 또래 집단에서 소외되지 않으려 똑같은 점퍼, 똑같은 운동화에 집착한다. 한국에서 10대가 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모험을 시작하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른들은 10대의 고통을 대학 입학 전에 누구나 겪어야 할 통과의례처럼 여기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이런 시점에서 경향신문이 '10대가 아프다'를 2011년 12월 15일부터 기획한 것은 뜻 깊은 시도라고 평가하고 싶다. [2]

비단 중, 고등학생만의 문제라고 여겨지는가? 이미 우리 초등학생 고학년들은 똑같은 경험에 들어서고 있고, 이미 학원과 학교, 가정의 잔소리에 지친 우리 어린이들은 마음을 나눌 상대를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

아이들은 세상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각각의 특성과 자질, 그리고 남들과 다른 무엇인가를 가지고 태어난다. 교사의 역할은 그러한 개성과 능력을 찾아 깨닫게 하고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한편,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그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능력을 이웃과 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으로 그 역할을 다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한 학급경영을 하는데 담임교사가 갖추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담임교사의 철학, 그리고 그에 따르는 열정이라는 점에 토를 달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담임교사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무엇을 담고 있는지에 따라 아이들의 행복이 좌우된다. 그렇다면, 다음의 교육철학을 비교해보고 내 교육철학을 글로 써 보자.

---

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0,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2) 경향신문, 12월15일부터, 1. 10대라는 형벌, 2.상담창구에 비친 아우성, 3.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다, 4.시험 앞두고 이상해지는 아이들, 5. 엄마아빠 선생님의 착각, 6. 엄마와 아이, 적인가 동지인가, 7. 10대 은어, '화성인'과의 대화, 8. 우리는 행복해지고 싶다, 라는 주제로 글을 싣고 있다. 참고하기 바란다.

"세계의 교육 경쟁에서 뒤지지 않으려면 미안합니다만, 초등학교에서부터 철저하게 경쟁을 시켜야만 하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강자가 약자를 보살펴주고, 강자의 보살핌 속에 강자로 자란 약자가 다시금 자기 뒤에 오나 약자를 보살펴주는 선순환의 법칙"

생각거리1. 나의 교육철학은 무엇인가?

2. 독서교육에 관한 학교의 현실

독서에 관해서 부모님들과 얘기를 할 때, "아이들이 책을 읽지 않고 컴퓨터만 한다."라고 호소한다. 책을 읽지 않으면 감상문은 물론, 토론, 수능시험이나 앞으로 시험양상이 될 논술에도 불리하다고 걱정을 하면서 말이다. 독서의 이유와 목적이 그보다는 더 심오한 데 있다고 믿는 나로서는 무척 씁쓸하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말이 틀린 것도 아니다.

책 읽을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아이들에게 책을 잘 사주지 않는다. 일찍부터 만화나 텔레비전, 비디오에 길든다. 도저히 독서할 분위기가 아니다. 책 읽을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부모의 정성에도 불구하고 어린이가 책을 읽지 않는 경우

책과의 첫 만남이 좋지 않았다. 책을 인지 발달의 도구로 생각한다. 어린이의 발달 과정을 고려하지 않는다. 개인차를 인정하지 않는다. 책을 많이 읽기만 하면 좋다고 생각하는 부모가 많다. 경쟁적으로 독서를 시킨다. 독후감을 강요한다.

학교에서 글짓기를 위한 독서를 강요하는 경우

독후감상문을 강요한다. 독서 후 너무 많은 활동을 제시한다. 시간 때우기 식의 독서를 강요한다. 재미있는 책을 권해주지 않는다. 선생님이 평소에 책 얘기를 거의 하지 않는다.

Ⅱ. 어린이 책읽기 교육에 필요한 몇 가지 원칙

1. 좋은 책을 읽힌다.

책을 읽고 마음이 움직여 책에서 받은 감동을 실천할 수 있게 하는 힘을 가진 책, 마음을 움직이는 책, 느낌이나 감흥이 넘쳐나는 책, 책에 나오는 인물의 삶을 쫓아가면서 울고 웃고 할 수 있는 책, 내 생활에서 따라 하고 싶은 마음이 우러나는 책이 좋은 책이다.

가. 삶의 보편적 의미와 가치를 담고 있는가?

독서는 세상을 통해서 나를 보는 방법이다. 내가 겪어보지 못한 세상, 또는 나와 비슷한 경험을 하는 세상 이야기를 읽으면서 나를 다시 들여다보는 것이다. 따라서 시공간의 한정된 영역을 뛰어넘는 인류 공통의 보편적 세계관의 관점에서 누구에게라도 감동을 주는 이야기여야 한다.

나. 전에 읽어보지 못한 새로운 느낌을 주는가?

모든 예술은 이전의 형식과 내용을 뛰어넘을 때 가치를 인정받는다. 따라서 위대한 작품들은 창의적인 소재와 표현 방법으로 주목받고 사랑을 받는다. 어디선가 읽어본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비슷비슷한 소재와 표현방식이라면 이미 좋은 책의 조건을 벗어난 것이다. 같은 소재라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다가 보통 사람들이 지나쳐 버린 소재를 찾아내어 새롭게 다루는 작가의 노력이 독창적일 때 더욱 가치 있다.

다. 베스트셀러와 스테디셀러를 주목해 보자

베스트셀러가 무조건 상업적인 책이라는 잣대를 들이대지 말자. 그 책이 잘 팔리는 데는 분명 관심을 끌 만한 이유가 있다. 어린이들이 그 책을 좋아한다면 그게 바로 이유이고, 그런 책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베스트셀러를 넘어서 꾸준히 인기 있는 책들도 있다.

예) 마당을 나온 암탉 등 황선미 선생 작품 다수, 돼지책 등 앤서니 브라운의 작품 다수 등

라. 이야기 구조가 탄탄한가?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없는 동화는 너무 뻔한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영상매체에 쉽게 노출된 요즘 어린이들에게는 다의적인 이야기 구조가 재미있다. 그런데 착한 어린이가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식의 뻔한 교훈과 이야기 흐름을 보여 준다면 당연히 재미없을 것이다. 좋은 책은 겉으로 드러난 이야기 속에 또 다른 의미들도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인생의 다른 측면을 들여다보기도 하고, 뒤집어 보기도 하고, 비교해 보기도 하면서 자신의 삶에 비추어 생각할 거리를 풍부하게 보여준다. 즉, 독자의 몫을 섬세한 방식으로 남겨주어 고차원의 독서를 가능하게 하는 책이다.

마. 어린이의 나이와 관심사에 맞는가?

책을 읽는 일은 자신의 경험세계와 깊은 관련이 있다. 아이들은 그만한 연령대에 비슷한 경험을 하면서 자라기 마련이다. 아이들 개인의 독서능력에 맞는 책, 나이와 관심사에 맞는 책이 가장 좋은 책이다.

바. 주제나 소제가 문체와 잘 어울리는가?

사. 제목, 목차, 본몬, 표지 등이 매력적인가?

아. 믿을 만한 작가와 출판사인가?

자. 독서 전문가의 추천을 주시하라.

2. 아이들 특성과 단계에 맞는 책을 읽힌다.[3)]

<초등학생의 발달단계별 특성>

3) 보편적인 시각에서 학년별로 나누었을 뿐, 각각의 아동에 따라 발달 수준이 다를 수 있음을 염두해야 한다. 다시 말해 6학년이라고 해도 5학년 이하나 중학교 이상의 발달 수준을 보일 수 있다.

가. 환상 동화 시대 – 초등 1·2학년

이 시기에 아이들은 거짓말을 잘한다. 그것은 그들의 상상력이 이 때 최고조에 이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판타지를 읽으면서 재미있어라 한다. 발달심리학에서 볼 때 인간의 성장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자극을 받아야 한다고 한다. 상상력도 마찬가지이다. 이 시기에 집중적인 자극을 받아야 한다. 이 시기가 지나면 이들은 곧 다음 단계인 합리적 사고기에 들어가 환상 대신 현실에 흥미를 느끼게 된다. 환상동화는 인간을 부드럽고 유연하게 하는 연골과 같은 역할을 하고 미래를 꿈꾸게 하는 역할을 한다. 또 쉬운 단편 동화를 많이 읽는 시기이다. 이때 선생님은 글씨 위주의 그림동화책을 선정하여 매일매일 아이들과 마주보고 낭랑하게 읽어주는 것이 최선이다. 추상의 내용보다 인물의 삶이 구체로 드러난 문학성 풍부한 작품에서 영향을 많이 받는 시기이므로 문학작품 (창작동화), 문학성 짙은 그림책, 옛이야기, 동요 동시, 문학성 풍부한 과학 환경 책들을 들려주고 보여 주는 책읽기 교육이 필요하다. 놀이가 더 중요한 시기란 걸 잊지 말기 바란다.

<1·2학년 독서 활동>

• 책 읽어주기, 구연으로 들려주기 • 전래동화를 듣고 돌아가며 얘기하기
• 다른 사람 앞에서 책을 크게 읽기 • 종이접기로 책 꾸미기 • 감상을 그림일기로 쓰기
• 간단한 어휘력 게임하기 • 찰흙으로 책 주인공을 만들기

나. 역사이야기 시대 – 초등 3·4학년

이 시기는 청각 중심 기억에서 시각 중심 기억이 우세해져 가는 때이다. 그래서 책을 읽는 방법도 그림 중심에서 글자 중심으로 넘어가야 한다. 비교적 읽기에 편한 내용이나 알맞은 수준의 책을 많이 읽어서 글 중심 독서습관을 형성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지식에 관련된 책과 긴 이야기를 좋아한다. 이 시기에 개인별 독서능력의 차이가 크게 벌어지게 되므로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독서지도가 필요하다. 이 시기는 읽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때이므로 이 근본적으로 기초를 튼튼히 해주지 않으면 계속 독서가 뒤떨어지며, 책 읽기가 뒤떨어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자꾸 뒤쳐져 나중에는 바로잡기가 힘들게 된다. 때문에 책을 많이 읽어서 글 중심의 독서습관이 정착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어휘력을 신장시켜 나가면서 문맥을 통해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고, 그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능력을 길러가야 한다. 다양한 분야의 책을 접하게 하여 배경지식을 넓혀가면서 읽는 기술을 향상시켜 나가야 한다. 이 시기에는 특히 개인별 독서능력의 차이가 가장 크게 벌어지게 된다. 따라서 이 시기는 책을 본격적으로 읽기 시작해야 하며, 생각의 정리, 정돈과 그 연결 능력이 극도로 발달하는 때다. 이 시기에 학생들의 읽기가 흥미로 읽는 독서, 공부를 위한 독서, 정보를 알아내기 위한 독서 등으로 나누어진다. 또래집단의 관계를 중시하며 자아 정체성에 조금씩 눈떠가는 시기이므로 또래 아이들이 쓴 글모음에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

<3·4학년 독서 활동>

• 책 저금통 만들기(독서통장) • 간단한 독서기록장 만들기 • 독서 퀴즈 대회, 문제 은행
• 이야기 다시 쓰기 • 만화로 이야기 꾸미기 • 동화 엽서 만들기

다. 지식과 논리의 시대 - 초등 5·6학년

이 시기는 읽기 능력이 성숙 단계에 도달해야 할 때이다. 신체적으로도 급성장하며, 행동에도 적극적인 성향을 보이게 된다.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적 호기심과 함께 지적 이해에 대한 욕구가 강하게 나타난다. 책을 읽을 때에는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면서 같은 주제에 대한 여러 사람의 견해를 비교하여 비판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게 된다. 이 시기에는 생각이 깊어지고, 감정도 성숙해지게 된다. 소년, 소녀를 주인공으로 어려움을 헤쳐 가며 문제를 해결해 가는 모험담이나 현실 생활 속의 문제를 아동의 시각에서 다룬 내용의 책과 논리 관련 책들이 적합하다. 읽기의 기틀이 완전히 잡히는 시기이다. 1분에 180개의 단어를 읽을 수 있는 독서 속도를 갖고 있어야 한다. 이 단계는 중학교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할 시기다. 중학교는 초등학교와는 달리 교재의 수준이나 수업방식 등이 급격하게 변하고,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갑자기 많은 학습량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지적 수준이 높은 학생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중학교 과정에 대비한 독서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사고의 폭과 넓이를 심화시키고 확장시켜 가면서 현실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우리 역사와 사회, 문화에 대한 관심을 확대해 갈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깊이 있는 이해와 논리적 사고가 필요하다. 작품에 자신을 몰입하거나 작품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시기이다. 특정 장르나 좋아하는 저자의 작품에 빠져드는 경향도 있다. 생활동화, 사실동화라 일컬어지는 실제 자신들의 생활 모습을 그린 동화책을 즐겨 읽는다.

<5·6학년 독서 활동>

•독서포스터 •도서관 광고하기 •독서토론 하기
•독서 발표회 •등장인물의 역할 바꾸기 •다른 책과 비교하기

3. 읽기 전 지도가 필요하다. (권하는 사람의 태도, 마음가짐)

아이들 특성이나 발달단계, 환경을 생각해서 책을 권하더라도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또 잘 읽는다 하더라도 쉽게 빨리 읽어버릴 때는 책에서 주는 풍부한 이야기를 제대로 읽어낼 수 없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좋은 책을 잘 받아들이게 하는 읽기 전 지도도 필요하다. 읽기 전 지도란 그 책을 읽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때와 곳, 만남의 자리, 책의 내용에 따라 읽기 전 지도는 달라지게 된다. 어떨 때는 책의 내용을 귀띔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작가의 삶을 이야기해 줄 수도 있다. 책에 나오는 시대의 정서나 흐름에 대해 이야기해 줄 수도 있고, 자기가 감동 깊게 읽은 책을 왜 어떻게 감동하였는지 이야기해 줄 수도 있다. 읽기 전에 아이들에게 책을 어떻게 받아들이게 할 것인가 생각하는 것이 책읽기 교육 첫걸음이다. 책읽기 교육은 인간 교육이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살아 움직이는 교육이다.

4. 어린이 책에 대한 어른들의 몇 가지 잘못된 생각

가. **아이들에게 무조건 책을 많이 읽혀야 한다는 생각** → 책을 싫어하는 아이로 키운다.

나. **어릴 때의 경험은 대수롭지 않아서 좋은 책을 꼭 읽힐 필요가 없다는 생각**
→ 이 시기는 짧기 때문에 불필요한 책을 읽을 시간도, 필요도 없다.

다. **어린이 책은 학습의 수단이라는 생각**

라. **독서교육은 국어교육의 연장이라는 생각**

→ 어린이 책은 이미 그 자체가 완결된 작품성을 갖는 책이다. 어린이가 읽어 감동을 받는 책은 어른이 읽어서도 여전히 감동을 받는다. 어린이에게 책을 읽히는 것은 감동을 주고, 드넓은 세계를 경험하고, 인간의 진실을 보여 주기 위한 것이지 지식을 전달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읽히는 것이 아니다.

> ***어린이를 대등하게 다루지 않고 '친애하는 어린 독자 여러분' 따위로 부르는 책, 어린이들의 천성에 어울리지 않는 책, 아름다운 그림으로 눈을 즐겁게 해 주지 못하는 책, 생기 넘치는 강렬한 표현으로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는 책,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밖에 가르치지 못하는 책, 즐움은 자아내도 꿈은 이끌어내지 못하는 책, 어린이들은 그런 책을 단호히 거부한다. (폴 아자르, ≪책, 어린이, 어른≫, 2003, 71쪽)***

마. **세계명작이라고 말하는 책을 꼭 (- 다이제스트 판이라도) 읽혀야 한다는 생각**

Ⅲ. 담임교사가 실천하는 독서교육

> **♧ 독서가 열풍이다 보니 독후활동으로 인해 역효과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 **♧ 독서는 그 자체를 즐기도록 해야 합니다.**
> **♧ 지나친 독후활동이 독서 자체를 방해합니다. 독후활동은 양념처럼 활용합니다.**
> **♧ 독서지도를 하다보면 결국 단순한 명제만 남습니다.**

1. 선생님부터 책을 읽자!

가. 집에서 엄마가 책을 읽으면 아이들이 책을 읽듯이,

나. 학교에서 선생님이 책을 읽으면 저절로 학생들이 책을 읽게 된다.

2. 학급문고를 만들자

가. 도서실 없는 학교 없다. 학급문고 있는 학급 별로 없다.

나. 오래된 재미없는 도서로 학급문고를 채우지 말고 선생님이 최근 10년 이내에 출간된 학년 수준에 맞는 책 목록을 만든다.

다. 선생님이 먼저 여러 권 준비하여 가져온다.

라. 아이들에게도 읽고 싶은 책을 가져오게 한다.

마. 학급문고로 관리하고 함께 읽는다.

바. 책에 가져온 학생의 이름 스티커를 멋지게 붙여주고 1년이 지난 다음 자신의 책은 가정으로 다시 가져가게 한다.

사. 그렇게 선생님이 구입한 책만 남게 되는데, 몇 년이 흐르면 꽤 많은 도서를 모으게 된다.

3. 독서통장을 활용하자!

가. 지나친 독후활동은 오히려 책 읽기를 방해한다.
나. 독서통장을 준비한다.
다. 책이름, 지은이, 출판사, 한 줄 느낌을 쓴다.
라. 한 줄 느낌 대신 주인공 이름만 적어도 좋다.
마. 읽은 책 내용 기억할 때 용이하다.
바. 물론 독서통장이 쌓이면 보상을 해줘야 한다.

4. 굳이 뭔가를 한다면, 학교 디지털도서관(DLS)을 활용하자!

가. 독서 활동란에 독서표현과 독서토론이 있습니다.
나. 독서표현은 글과 그림을 올릴 수 있고
다. 독서토론은 토론할 수 있는 곳입니다.
라.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곳입니다.
마. 독서표현을 할 때 선생님들의 댓글이 아이들에게 힘이 됩니다.

5. 독서치료(독서요법)를 통한 생활지도

동화책을 함께 읽으면서 생활지도가 자연스럽게 될 수 있다는 것은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서 증명되고 있기도 하지만, 본 학급에서 지난 몇 년간 사실동화를 함께 읽고 대화를 하면서 그 어느 것보다도 효과적인 생활지도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 이는 독서요법, 독서치료라는 용어로 사용되어지고 있으며, 독서지도연구회(1989)의 정리에 따르면 독서 요법은 참여자가 책의 주인공이나 등장인물이 자기와 같은 문제성 있는 행동을 책 속에서 발견하는 동일시(同一視)와 책의 주인공이나 등장인물의 그 문제성을 해결해 나가는 모양을 인식하고서 얻는 통찰, 가지 마음속에 얼기고 설긴 답답함을 어느 사이에 소멸시켜 주는 듯한 카타르시스 과정을 통하여 자기존중감과 대인관계 능력이 향상되는 것[4]이라 보았다.

이오덕 선생님은 어린이의 삶을 살리고 지키기 위해 아동문학 비평을 하기 시작했다. 이오덕 선생님 뒤를 이어 권정생 선생님 임길택 선생님 그리고 현재 활동하고 있는 황선미, 김중미, 박기범, 이금이, 위기철, 채인선 등 동화작가가 1990년대 들어서 2000년대까지 급물살을 일으키며 사실동화 작품을 내보이고 있다. 이 중 우리 아이들의 현실을 그대로 담아내고 감동과 때론 교훈을 주는 작품을 아이들이 읽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생활지도의 흐름을 잡을 수 있다. 아이들은 작품 속의 주인공을 통해 공감을 느낄 수도 있겠고, 나보다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며, 선생님의 마음 때로는 부모님의 마음도 읽어낼 수 있다. 물론 그 이전에 교사의 선행독서는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하고 싶다. 아이들이 책을 읽지 않는다고 걱정하는 부모들을 보면 부모 자신이 책을 읽지 않기 때문인 걸 모르는 것과 같은 우매한 교사가 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4) 독서지도연구회, 독서지도 사전, 서울:경인문화사, 1989

가. 독서요법(독서치료)이란

독서요법(Bibliotherapy)[5]에 대해 Schrank와 Engels(1981)가 독서요법 연구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63개의 정의를 요약하였는데, 독서요법이란 개인이 자신과 환경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우고 문제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독서를 통하여 지도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독서를 통해 개인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상담영역에서 독서를 심리치료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간주되어지고 있다면 여기에서는 독서행위를 좀 더 적극적으로 끌어들여서 인성교육과 함께 독서 행위를 목적으로써 간주한다.

나. 독서요법의 방법

1단계 : 아동의 상황 진단·파악 단계

독서요법 실행의 준비 단계에서 교사는 평소 생활 속에서 대상 아동의 인성과 행동에 관한 폭넓은 정보를 수집한다.

2단계 : 상황중심의 문학작품 선정 및 계획단계

독서 자료의 주제가 갖추어야 할 특성으로 먼저 독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고 자신과 쉽게 동일시할 만한 정서와 경험을 다루는 보편적 주제여야 한다. 둘째, 보편적인 것만으로는 참여자에게 부족할 수 있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영향력(강한 힘)있는 주제여야 한다. 셋째, 이해될 만한 주제여야 한다. 여기에서는 아동의 수준을 고려한 독서 자료의 선택이 필요하다. 넷째, 독서요법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참여자의 장점을 강화시켜 주고 자아 존중을 증진시키고 자신의 삶을 특히 바꿀 수 없는 현실 생활을 좀 더 창의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위해서 긍정적인 주제여야 한다.

3단계 : 작품 읽기 활동 전개 단계(읽기→대화하기→반응일지쓰기)

작품은 교사와 아동 같이 읽는다. 작품을 읽고 난 뒤, 교사와 대상 아동이 서로 생각과 의견을 나누는 활동을 한다. 이 때 교사와 대상자의 친밀한 인간관계(rapport) 형성이 중요하다. 서로가 신뢰감을 갖고 정서적으로 깊은 유대감을 유지하여 대상자의 정신적 갈등이나 내면적이고 심층적인 심리에 대한 직관 및 통찰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대상자가 교사에게 저항감을 갖지 않도록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며, 교사는 대상자의 의식 변화와 행동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필요에 따라 독서 계획을 변경하거나 수정해 나가면서, 실행 과정이 종결될 때까지 유연성과 인내심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 이때, 작품을 부분적으로 읽고 대화를 나눌 수도 있고, 작품을 다 읽고 느낌을 서로 이야기 할 수도 있다.

선생님과의 대화, 상담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관계 형성이 필수인데, 관계가 형성되었다 하더라도 선생님의 존재를 어렵게 생각하는 아동이라면, 대화와 상담에 있어 모든 것을 말로 표현해내지는 못할 것이다. 따라서 반응일지 쓰기활동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독후감상록 형태의 형식적이고 강제적인 것과는 분명 경계를 지어야 하겠다. 반응일지가 독후감상문이나 독해 문답식이 된다면 오히려 독서활동에 거부를 느낄 수 있기 때문인데, 반응일지를 아동이 꺼려한다면, 대화와 상담을 선행하면서 적절하게 지도해야 한다.

---

5)독서지도연구회(1989)의 정리에 따르면 독서 요법은 참여자가 책의 주인공이나 등장인물이 자기와 같은 문제성 있는 행동을 책 속에서 발견하는 동일시(同一視)와 책의 주인공이나 등장인물의 그 문제성을 해결해 나가는 모양을 인식하고서 얻는 통찰, 가지 마음속에 얼기고 설긴 답답함을 어느 사이에 소멸시켜 주는 듯한 카타르시스 과정을 통하여 자기존중감과 대인관계 능력이 향상되는 것이라 보았다.

4단계 : 독서활동 발전·심화 단계

독서활동의 후반부에 달해서는 아동의 독후 반응이 다양해짐을 알 수 있다. 독서능력에 따라 다르겠지만, 독서요법을 통한 독서지도를 진행하다보면, 책에 흥미를 가지고 독서를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서평을 하는 등의 발전된 모습을 보인다. 이런 경우 발전·심화 단계로 다음과 같은 지도를 한다.

<동일 작가의 작품 비교하기>

동일 작가의 작품을 비교하게 한다. 억지로 동일 작가의 작품을 읽게 하지 않더라고, 한 작가의 작품이 자신에게 재미를 주었을 때에 그 작가의 다른 작품에도 흥미를 갖게 된다.

<주제가 비슷한 다른 작품 비교하기>

같은 주제라 할지라도 배경과 상황에 따라 주제를 풀어가는 스토리도 분명 차이가 있다. 독서를 하다보면, 비슷한 내용의 책들을 발견한다. 비슷한 내용의 책, 즉 주제가 비슷한 책이 어떤 식으로 결말을 맺어 가는지, 주인공이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지 비교하게 한다.

Ⅳ. 마치며

올바른 독서지도로 아동의 삶을 행복하고 바르게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확신에서 독서요법을 시작하였다. 또한 유아시절 엄마의 노력에 의해 그림책을 성공적으로 접한 아이들도 초등학교에 들어오면서부터 독서량이 급격히 줄기 시작하는 이유가 비단 학업에의 정진 때문만은 아니라는 문제의식도 있었다. 컴퓨터 앞에서 넷(net) 공간 속에서 길들여진 나머지 사람들과의 관계에 무디어진 아이들, 아이들이 예전과 다른 이유일 것이다. 자판기 위에 올려진 우리 아이들의 손에 책이 잡혀지게 우리 교사들이 도와야 한다. 동화 읽는 어른 - 동화를 사랑하는 단체의 모임인데, 이 모임의 어른들처럼 동화를 읽다보면 아동뿐만 아니라 어른도 동화에 푹 빠지게 되고, 심지어는 가슴이 절절이 아려옴이 느껴지면서 눈물을 꺼이꺼이 흘리기도 한다. 교사 또한 동화책에서 많은 걸 배우고 느낀다. 동화 읽는 선생님이 되어보자. 자연스럽게 우리 반 아이들은 동화 읽는 아동들이 되어있을 것임을 확신한다.

책 읽기에 대한 이야기는 간단하면서도 주저리주저리 늘어놓게 된다. 가정에서는 부모가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책 읽기를 하면 내 아이들도 저절로 읽기에 흥미를 가지게 되니 간단한 것이며, 알면서도 실천에 옮기지 못하니 그 효과를 내보이며 주저리주저리 늘어놓게 된단 말이다. 억지로라도 무조건 아이들 손에만 책을 들게 하는 것은 부모의 선생의 욕심이다. 책을 읽으면서 얻게 되는 행복과 득은 말하지 않아도 모두 잘 알고 있다. 엄마, 아빠의 손에 선생님 손에 책이 있는 그 순간이 우리 아이와 책을 친구로 만들어주는 첫 걸음이란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길 바란다.

◀◀◀◀◀ 읽어보세요!

♧ 학급운영 및 생활지도 관련

·강태심 등 (2004),『우리반 집단상담』, 우리교육
·권현진 외(2003),『(새내기 초등교사를 위한)학급경영길라잡이』, 양서원
·김계현 외(2003), 『학교상담과 생활지도』, 학지사
·우리교육엮음(2002), 『빛깔이 있는 학급문집 만들기』, 우리교육
·우리교육엮음(1999), 『빛깔이 있는 학급운영1-학급운영 터 잡기』, 우리교육
·우리교육엮음(1999), 『빛깔이 있는 학급운영2-상담과 생활지도 길잡이』, 우리교육
·우리교육엮음(1999), 『빛깔이 있는 학급운영3-학급행사 이끌기』, 우리교육
·이강옥 엮음(2006), 『애니어그램 이야기』 중앙적성출판사
·정기원(2002), 『희망과 감동이 있는 밀알두레반 이야기』, 양서원
·하임G.너트(1995), 『선생의 관심에 인생이 바뀐다.』 보성출판사
·하임G.너트(2007), 『교사와 학생사이.』 양철북
·히라이노부요시(2004), 『착한 아이보다 인정받는 아이로 키워라』, 명진출판
★그 외에, <교실 속 갈등상황 100문 101답>,<아이들의 성장을 돕는 초등상담>,<마음을 여는 초등학급상담>

♧ 수업비평

★<수업을 왜하지?>, <수업, 비평의 눈으로 읽다.> <수업, 비평을 만나다>

♧ 독서지도

·김은하(2003),『우리 아이, 책 날개를 달아 주자』, 현암사
어린이도서연구회 엮음(2003), 『동화, 이렇게 보세요』, 웅진닷컴
이오덕(2002),『우리글 바로쓰기1.2.3』 ,한길사
·아희경(2006),『마음속의 그림책』,미래M&B
·전국초등국어교과 구리남양주모임(2003), 『그림동화로 여는 국어수업』, 나라말
·히야시 히로시(2005),『아침독서, 10분이 기적을 만든다』,청어람 미디어
·하제(2003),『책아, 우리아이 마음을 열어줘』, 청어람미디어
★그 외에 <책으로 크는 아이들> - 독서지도
☆초등교사로서 읽으면 좋을 잡지☆
· 동화 읽는 어른(어린이 도서 연구회 http://www.childbook.org)
· 초등 우리교육(http://uriedu.co.kr)

♧ 학급활동

·김선현(2007),『마음을 읽는 미술치료 』, 넥서스 BOOKS
·백창우 아저씨네 노래창고, 『이원수 시에 붙인 노래들』-노래CD
·새로 다듬고 엮은 전래동요(1999), 백창우 채보/작곡
·한글글쓰기교육연구회 엮음(1988), 『아이들을 하늘처럼 섬기는 교실』, 한길사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까, 우리 선생님들이 편지로 주고받은 오늘의 교육이야기
★ 그 외에 <아이들과 함께하는 재미있는 그림 그리기>, <교육마술>, <즐거운 북아트 교실>, <재미있고 유익한 북아트 교실>, <배움을 키우는 교실 속 북아트>

♧ 나로부터의 혁신

·고니시 겐지로(2001), 『학급혁명.』 사계절
·김대유(2006),『가끔 아이들은 억울하다』, 우리교육
★<작은 학교 행복한 아이들>,<학교를 바꾸다>,<수업이 바뀌면 학교가 바뀐다>

학급경영 및 교수 - 학습 지도 방안

박 정 은
(운봉초등학교 교사)

Ⅰ. 학급경영을 위한 몇 가지 고민

1. 학급 운영의 기본 자세

가. 학급의 모든 교육활동은 학교 교육의 본질적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과 실천에 집중한다.
나. 학급 경영 계획을 세우는 데는 우선 아동을 알아야 한다.
다. 전체적인 인간 형성을 지표로 하는 학급경영의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라. 명랑한 분위기의 학급 사회를 조성해야 한다.
마. 담임 교사의 투철한 교육관과 예민한 시대 감각으로 학급 독자적인 창의성을 발휘하도록 힘쓴다.

2. 아동 지도의 기본 방향

가. 아이들을 아이들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노력한다.
나. 아이들이 내게 다가서기를 바라지 말고 아이들의 곁으로 내가 다가서도록 노력한다.
다. 바른 몸가짐과 바른 말을 사용한다.
라. 인격을 모독하는 말을 삼가하고 꾸짖을 때는 그 행위에 대해서만 꾸짖는다.
마. 체벌을 하지 않는다.
바.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간섭과 통제를 피한다.
사. 가능한 한 밝은 얼굴로 아이들을 대한다.
아. 가능한 한 아이들보다 먼저 학교에 출근하여 하루를 준비한다.
자. 교재연구를 철저히 한다.
차. 필요 없는 잔소리나 훈계를 하지 않는다.(오히려 역효과가 난다.)
카. 차별 대우를 하지 않고 촌지를 절대로 받지 않는다.
타. 자율 속에서 스스로 질서를 찾아가는 교육을 한다.
파. 즐거운 학급분위기를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 (목표 없는 교사위주의 즉흥적 행사를 피하고 지속적이고 꾸준한 행사를 준비하고 아이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하. 꾸지람보다는 칭찬을 많이 한다.
거. 일기는 날마다 검사하여 아이들이 생활을 알 수 있도록 하며 가능한 한 읽은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3. 학급 활동 지도상의 유의점

가. 모든 활동이 담임 교사의 주도한 계획과 지도하에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교사의 지나친 관여로 아동의 자발성을 위축시키는 일이 없도록 한다.
나. 학급의 활동은 전체 또는 개별 아동에 대한 생활지도의 가장 좋은 기회가 될 것이므로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를 활용하도록 한다.
다. 다른 학급이나 학교 전체의 생활과 상치되지 않는 협조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

4. 학급 내규 정하기

학급을 운영할 때 민주성과 자율성만 강조하다 보면 자칫 무질서의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민주적인 생활태도는 다수에 의해 합의된 사항들을 자율적으로 지켜나가는 것이므로 학기 초에 반 나름대로의 원칙을 정하고 이를 실천해 나가는 것은 미래사회의 주역을 교육한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학급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나 학교생활에서 지켜야 할 것들, 실내 정숙의 정도와 방법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다. 충분한 토의를 거쳐 아이들이 직접 규칙을 정하고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아이들에게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규율을 강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강요보다는 자신 스스로 지키고 실천한다는 의식을 갖도록 지도해야 한다. 아울러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도 지나친 벌이나 비난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특히 벌로서 청소를 시키는 것은 그릇된 방식라고 볼 수 있다.

5. 아동의 실태 파악 - 선생님께만 들려주는 나만의 이야기

교사와 1년을 함께 생활할 아동의 생활 환경을 안다는 것은 학기초 아이들과의 첫출발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아동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가치관을 갖고 생활하며 가정환경은 어떤지 미리 알아두면 아동의 생활지도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혹시나 일어날 수 있는 아동의 문제에 대처할 수 있다. 아동의 실태는

가. 생활기록부를 참고로 한 조사 - 이 때 가능하면 가정환경(부모의 유무) 등을 중점으로 확인하고 성적이나 행동 발달 등은 얼마간의 시간이 경과한 후에 보는 것이 좋을 듯 하다. 왜냐하면 아동에 대한 편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나. 아동 실태 조사표를 활용한 조사 - 아동의 가정환경, 부모관계, 가족관계, 취미, 특기, 도움이 필요 한 일, 잘하는 일 등 아동의 실태분석에 필요한 자료들을 제시한 표를 아동에게 나누어주고 집에서 기록해 오도록 한다.

다. 학부형 글을 통한 실태 분석 - 학기초 숙제로 학부모들의 의견 (교사에게 부탁하는 말, 1년 동안 지도되었으면 하는 내용, 가정에서 보아온 아이의 특징 등)을 숙제로 내주어 적어오도록 한다.

라. 각종 자료를 참고로 조사된 내용은 '개인별 아동 신상 카드'에 차례대로 정리하여 계속적인 아동 지도의 자료로 활용한다.

6. 학부모님과의 대화 - 가정 통신문 보내기

아동교육은 학교교육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교육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지므로 학부모와 담임이 서로 긴밀한 관계를 가질수록 교육의 효과는 커진다. 그러나 교사가 가정 방문을 하거나 학부모가 학교를 찾아오는 일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므로 교사가 학부모에게 보내는 가정통신문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가정통신문은 형식적인 인사로 한 번 보내고 말 것이 아니라 학급행사와 아동들의 반응들을 적어 편지 형태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정기적으로 보내면 학부모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도 더욱 커진다. 3월 첫 가정통신문은 1) 담임 소개와 교육관과 지도 방침 2) 3월의 학급운영계획 3) 학부모가 담임에게 하고 싶은 말을 보낼 연락 방법과 연락처 등을 중심으로 적어 보낸다.

7. 아침 자습의 지도

학교마다 사정과 운영방법에 있어서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초등학교에서는 8시30에서 9시 까지를 아침 자율 학습 시간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다. 아침 시간대는 아이들이 학교에 등교하여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느냐를 판가름하는 시간이며,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냐 하는 점에서 교사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준다. 학교 전체적으로 일정한 주제를 가지고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학급마다 나름대로의 특성을 살려 알차게 운영하는 교사들도 있다. 그만큼 아침자습 시간은 아이들 교육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시간이라는 의미이다. 결코 짧다고 볼 수 없는 아침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고 능률적일까?

가. 효과적인 아침자습을 위한 전제 조건

아침자습 시간의 중요성에 대한 교사들의 재인식의 관점이 필요하다. 학교를 관리하는 분들이 말하는 생활지도의 문제점을 예로 들지 않더라도 활기찬 학급생활을 위해 알찬 아침시간 활용은 무엇보다도 소중하다. 어린이들이 아침에 와서 무슨 큰 일을 하겠냐고 반문할지도 모르지만 졸린 눈을 비비면서 학교에 와서 1교시 학습에 임하는 것보다는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맑은 머리로 하루를 시작한다면 아이들의 하루는 더욱 활기가 넘치지 않을까?

첫째 아침자습 시간이 즐거운 학교생활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에게 심적인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되겠다. 하루의 첫출발에서 아이들에게 고통(?)을 안겨준다거나 피곤함을 준다면 이어지는 학과 수업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

둘째, 과도한 활동성을 요구하는 주제를 주어서는 안되겠다. 지나친 활동을 요구하는 주제는 아이들에게 차분함을 주기는커녕 소란스러움을 야기하는 결과를 가져와 이러한 주제를 준다면 오히려 아침시간이 아이들의 분위기만 들뜨게 하는 효과를 줄 수 있다.

셋째, 다양한 창의력과 자율성을 길러주는 주제를 주어야 한다. 교과서에 나오는 몇 개의 문제를 성의 없이 제시한다거나 단순한 암기 위주의 주제를 제시한다면 아침시간이 또 다른 수업시간으로 느껴져 아이들이 하루를 시작하는데 부담감만을 가중시킬 것이다. 아이들이 생각하여 답할 수 있는 주제, 자율적인 토론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주제를 정하여 보자. 교과서에서 탈피한 주제를 제시하여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기대해보자.

나. 아침자습은 이렇게 해보자

① 요일별로 각기 다른 주제를 정하여 실시해보자. 요일별로 각기 다른 주제를 정하여 그에 맞는 방법으로 아침시간을 활용한다. 예를 들면 월요일이나 토요일은 운동장 조회가 있는 경우가 많으니 생략하고,

화요일 : 살아 있는 그림 그리기

수요일 : 즐거운 노래 배우기 (가능하면 가사를 생각할 수 있는 조용한 노래를 배운다.)

목요일 : 논리적인 문제 풀기나 아침운동 (배드민턴이나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전래 놀이등)

금요일 : 삶을 살찌우는 글쓰기 (글쓰기 시간은 가능하면 조용한 가운데 할 수 있도록 하고 아이들의 삶이 담긴 시나, 글을 읽어 주거나 아이들이 쓴 글을 논의해보기)

② 일주일에 한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운영하기

요일별로 운영하는 것의 변형으로 일주일 단위로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적응력을 기르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은 자칫 아이들의 흥미를 떨어뜨려 아침시간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지속적으로 지도해야 하는 주제에 대해서는 단절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질 수 있다.

다. 아침시간에 할 수 있는 간단한 것들

① 미완성 문장 만들기- 완결되지 않은 문장을 제시하여 아이들로 하여금 다양한 답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 사고력을 넓힐 수 있다. 예를 들면,

* 돈이 많은데 내가 열흘 후에 죽는다면...
* 내가 선생님이라면...
* 나는 이럴 때 어른들이 싫더라...
*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② 갈등사례 제시 문장- 아이들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갈등 사태를 여러 가지 제시하여 논의한 후 한가지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면, 침몰하는 여객선에 정치인, 어린이, 전과자, 군인 등등의 인물이 타고 있는데 배가 침몰하여 한 사람이 빠져야 한다는 전제를 제시하여 아이들이 다양한 사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다.

③ 보충화 그리기 - 간단한 선을 칠판에 그려 놓고 그 선을 이용하여 각자가 그리고 싶은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리는 방법이다. 아이들의 창의성을 유도할 수 있는 좋은 점이 있다.

④ 감수성훈련 - 감수성 훈련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예를 들면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열 명을 각각이 종이에 적고 하나하나 버리는 것을 통하여 소중한 것에 대한 뚜렷한 의식을 갖게 하는 등의 방법이 있다.

⑤ 뜨게질(자수) - 정적인 자세를 필요로 하는 주제로서 남자 아이들도 흥미를 가진다.

⑥ 단편 동화 읽고(복사하여 나누어준다.) 주인공에게 편지 쓰기 - 아이들이 읽을 만한 단편 동화를 선정, 복사해 준 후 읽게 하고 주인공이나 등장인물에게 편지를 쓸 수 있게 한다.

⑦ 단편동화 읽고 퍼즐 문제 내기(모듬별) - 동화를 읽고 모듬별로 동화의 내용을 퍼즐문제로 내어서 모듬별로 퀴즈 대회를 연다.

⑧ 동화책 읽어 주기 - 교사가 적당한 내용의 단편동화를 읽어준다거나 장편동화를 조금씩 읽어 준다.

⑨ 낱말 맞추기 -퍼즐 형식으로 된 낱말 맞추기를 실시한다.

아침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교사의 올바른 시각이 필요하다. [학급혁명]이라는 유명한 책을 쓴 일본의 고니시겐지로 선생님은 늘 아이들보다 먼저 교실에 도착하여 아이들에게 먼저 인사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일기 검사를 철저히 하여 아이들의 생활지도의 자료로 삼았다고 한다. 비록 많은 잡무와 개인적인 사정으로 힘이 들겠지만 교사의 노력과 정열만이 아이들을 올바르게 가르칠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아침시간을 임해야 하겠다. 자율학습이라고는 하지만 아직은 아이들이 스스로 절제하는 힘이 없으므로 어느 정도 교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본다. 아이들보다 먼저 오는 교사, 최소한 아이들과 비슷한 시간에 오는 교사의 모습 속에서 아침시간은 올바로 자리매김 될 것이다.

또한 중요한 것은 주어진 주제를 모두 해결한 아이들을 어떻게 하느냐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교사의 충분한 준비로 다른 아이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지도해야 하겠다. 교실의 빈 구석에 장기판을 만들어 둔다거나, 동화책을 구비해서 독서를 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이다.

모든 교육활동이 그러하지만 아침자습시간의 활용도 교사의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목적이 있어야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진리이다.

8. 아동 좌석 배치에서 유의할 점

아동의 좌석은 아동 개개인의 성장도를 고려하여 우선 편안하고 건강위주가 되어야 하고 아동 상호간에 인간관계를 원만히 하고 정서적 안정을 이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좌석의 배치는 아동 상호간에 지적인 자극을 주어야 하며 아동들의 사회성을 넓히는 것이어야 한다. 좌석은 2-3개월에 한 번 정도 바꾸는 것이 좋다.

9. 말을 잘 하지 않는 아이의 지도

학교에서나 여러 사람 앞에서는 말을 하지 않지만 가정에서는 곧잘 말하는 아동이 있다. 말을 하지 않는 아동 중에는 교사에 대한 일종의 반항심으로 말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겠다. 말을 하지 않는 아동을 구분해 보면 농아, 백치, 발성기관 또는 언어 중추 기관, 정서적 장애, 정신적 신경증에 의한 병, 수줍음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교사에 대한 공포심, 학급 아동에 대한 경계심 등이 아동의 언어 장애를 초래했다면 다정한 인간관계의 조성과 적절한 칭찬, 발표 기회를 제공해 준다.

10. 숙제란?

좋은 숙제	나쁜 숙제
아동의 능력과 개인차를 충분히 고려	개인차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낸 것
학교 수업의 유기적인 관련을 고려	스스로 해결이 불가능한 숙제
발달 단계에 맞는 내용과 분량	학교 수업과 관련이 없는 것
학습 동기나 학습 흥미를 유발하는 것	놀리지 않기 위해 무조건 내는 숙제
아동의 평소 실력과 학습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평가가 가능한 것	교사가 하기 싫어서 숙제로 돌리는 것

11. 과제 처리 과정의 유형

가. 어린이들끼리 답을 맞추어서 발표 토의 종결
나. 수업 전 또는 방과 후 대략 분량만 보고 파악 검열
다. 반장에게 일임하고 결과만 보고 받음
라. 각 분단별로 분단장이 검열, 결과만 보고
마. 어린이 짝끼리 상호검열, 결과만 보고
바. 어린이 자신이 채점 결과만 보고
사. 당일에 교사가 어린이 하나하나 검열, 이행상태를 확인한다.
아. 과제를 수합했다가 하나하나를 검열, 채점까지 한다.

함께 꾸며가는 학급 환경 구성

이 수 진
(보절초등학교 교사)

아이들의 하루 생활 중 활동하는 시간을 따라가 보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학교이고 교실이다.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수업과 일상적인 교사의 말과 행동은 고스란히 아이들의 사고를 형성하고 인격을 키우는데 영향을 주고 있다. 더불어 학교와 교실에서 보이는 수많은 환경물들도 아이들에게 간접적으로 때론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므로 교실은 단순히 지식 전달을 위해 의자 몇 개 놓아 둔 곳이 아니라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고 **정서적이고 아름다운 공간**이어야 한다. 이러한 의도에서 교실 환경 구성을 고민하며 꾸며가는 것이 교사의 또 한 가지의 일이라는 점에서 교실환경구성을 접근해보고자 한다.

1. 학급환경구성의 목적

가.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여 정서 함양과 창의성을 신장하기 위함.
나.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함.
다. 학생들의 학습 활동 상황을 나타내어 다른 학생들이 함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함.
라. 지속적인 관찰을 통한 탐구력을 키우기 위함.
마. 청결하고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여 건강한 생활을 하기 위함.

2. 학급환경구성의 방침

가. 학생들의 학습발달에 맞고 정서 함양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구성한다.
나. 학생의 작품 및 학습한 내용을 보일 수 있는 공간, 칭찬 공간, 독서 공간 등을 마련한다.
다. 관찰에 필요한 식물을 재배한다.
라. 청결함과 안정감이 나타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성한다.
마. 학교, 학년, 학급의 특색이 잘 나타나게 꾸민다.
바. 기타 담임 재량에 의하여 창의적인 학급운영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한다.

3. 세부계획

가. 출입구 앞문 옆 벽면 : 학급 소개 액자 게시- 담임, 학급 어린이들이 함께 찍은 사진, 학급 특색 등의 학급 소개하기
나. 교실 뒷면 작품란 : 학급 특색 사업과 관련한 내용을 나타내는 공간을 마련하고 학생들의 학습활동 결과물이 게시되는 공간으로 활용
  1) 칭찬 마당 : 학생들의 선행 활동, 우수활동, 모둠별 우수활동을 누가하여 기록하여 칭찬하고 격려할 수 있는 코너를 마련함
  2) 독서 마당 : 학생들의 독서상황을 누가하여 보여줄 수 있는 코너를 마련하여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독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함.

3) 학생작품마당 : 수업 중 이루어지는 학습활동을 나타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함. (학생 이름 표시)
4) 뒷면 작품란의 윗부분은 학급 특생이 나타나는 타이틀 글 꾸미기
5) 공작대 : 학생들의 작품 중 공작품을 중심으로 전시할 수 있는 진열장을 구비하여 조화 있게 배치하도록 함.

다. 교실 옆면

1) 학습준비물, 도서정리함 등 교실의 구조에 알맞게 정돈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복도 쪽 옆면에 정보 활용을 위한 컴퓨터 책상 등 배치
2) 교실 창문 쪽으로 화분, 관찰 시설물을 설치하여 학생들의 정서생활과 탐구활동을 돕도록 함 (특히 화분은 식물의 종류에 따라 햇빛을 좋아하는 식물은 창 쪽으로 배치하고 햇빛을 싫어하는 식물은 복도 쪽으로 배치하도록 함)
3) 학급규칙, 1인 1역표 등

라. 교실 앞면

1) 태극기(무테 액자) 정면 중앙, 칠판, TV, 교사용 컴퓨터 책상 등을 제외하고는 학생들의 시선이 분산되지 않도록 가급적 물건을 놓지 않도록 함.
2) 교사용 책상과 컴퓨터용 책상은 항상 정리 정돈하여 수업 중 학생들에게 시각적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함.

마. 교실 뒷면

1) 학생들의 사물함, 청소함, 쓰레기통, 우산꽂이, 청소기, 분리수거함 등을 정돈하여 배치함.
2) 학생들의 사물함에는 학생들의 이름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함. (가능한 양면테이프는 사물함 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함)

바. 기타

1) 학생 면장철은 교실에 보관하여 학생들이 수시로 보고 활용하도록 관리함.
2) 복도 신발장에는 학생들의 신발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이름표를 부착하고 청결하게 관리하도록 함.
3) 하교 후 신발장에 실내화 정리가 가지런히 정돈될 수 있도록 수시로 지도함.
4) 창문틀, 복도 창틀, 자기 학급 앞 액자의 먼지 등을 수시로 제거하여 청결을 유지하며 교실 및 복도 바닥 청결 관리에 주의함.
5) 교실 내 분리수거함을 마련하여 학생들이 분리수거를 생활화하도록 함.
6) 재활용품은 각 학교 재활용품 수거함을 이용하여 모아서 버림.(요일 지정 등)
7) 음식물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도록 하며 급식실 음식물 수거함을 이용함.
8) 폐휴지는 한 곳에 모았다가 묶어서 창고 폐휴지 보관하는 곳에 내놓도록 함.
9) 시계, 달력 등은 교실 내 적당한 공간에 부착하고 특히 아동의 시선을 흐트러뜨리지 않게 함.

사. 환경정리 기간 및 경비

1) 기간 : 매 학기 초 기본적인 환경을 구성하고 학생 작품은 수시로 갱신하도록 함
2) 경비 : 예산 확보는 실내 환경 담당 계에서 확보하고 학년 초에 품의하여 집행하도록 함.
3) 자료 보관 : 환경정리로 구입한 자료들은 환경 계를 중심으로 자료 보관 장소를 택하여 보관하여 서로 필요할 때마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함.

4. 환경 정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재료

가 우드락

- 특징 및 활용
  - 입체감을 주기에 적합한 재료로 열선 커터기 이용하여 자름.
  - 2절 크기의 다양한 색상으로 두께가 있어서 배경판으로 활용하기 좋음.
  - 잘 부러지며, 접착 테이프를 붙였다 뗄 경우 색이 같이 떨어져 나옴.

나. 골판지

- 특징 및 활용
  - 골판지, 띠골판지, 물결무늬 골판지 등이 있음.
  - 보통 4절, 띠골판지는 50cm 정도의 길이로 입체 인형을 꾸미는데 사용하거나 테두리에 활용할 수도 있음.
  - 글루건을 이용하여 붙이기 때문에 손을 데일 염려가 있고, 자르기가 불편함.

다. 칼라 색상지

- 특징 및 활용
  - 와트만지, 구김지, 주름지, 머메이드지, 색한지, 파인애플지 등 다양한 종류의 종이가 시중에 나와 있음.
  - 종이의 두께와 종류에 따라 작품판 배경 환경을 구성하거나 학생 작품에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음.

라. 기타 재료 : 모루, 인형 눈, 리본, 체인, 지끈, 펠트, 시트지, 지점토, 니스, 스팡클, 모양펀치, 집게, 털실, 구슬 줄, 빨대, 스티로품공, 콜크보드, 칼라종이접시, 칼라종이컵 등

5. 교실 정리 정돈

가. 교실 정돈을 위한 네 가지 원칙

학생들이 질서 정연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함으로써 교실 내에서의 소란을 최소화하며, 공간을 능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교실을 정돈하는 게 중요하다. 각자 처한 학급 환경에 따라 다양한 방향으로 응용할 필요는 있지만 교실 정돈에 관련한 결정을 내리는 데 다음의 네 가지 지침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1) 통로는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2) 학생들이 한눈에 들어와야 한다.

3) 자주 쓰는 교수 자료나 학생용 비품은 쉽게 가져올 수 있어야 한다.

4) 학생들이 교사가 제시하는 수업 자료나 게시물을 쉽게 볼 수 있어야 하며, 교실 한 구석에서 수업을 이끌어 가거나 수업 자료를 제시하는 일은 어린이들의 주의 집중도를 고려할 때 피해야 한다.

나. 교실 정돈의 실제

1)벽과 천장

가) 학기가 시작될 때에 벽과 칠판에는 적어도 학급규칙, 그 날 그 날의 숙제와 1인 1역표를 게시하는 곳, 시기에 맞는 장식품 같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나) 학습장 정리 방법이나 올바른 숙제 정리 방법, 내일 또는 다음 주에 배우게 될 주제를 강조한 진도표와 같은 학습 관련 게시물을 준비한다.

다) 학급 정돈이 필요한 일이라고 해서 교실을 장식하는데 지나친 시간을 들일 필요는 없다. 게시판이 약간 비어 있다면 나중에 학생들의 미술 작품이나 학습의 결과물로 채울 수도 있다. 세세한 장식은 학생들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교실을 작아 보이게 한다.

2) 마루

가) 학생용 책상의 배치

① 어떤 책상 배치를 하더라도 어린이들이 주된 학습 공간과 등지어 앉지 않아야 한다.

② 교사가 실물화상기나 TV로 어떤 내용을 제시할 때 모든 어린이들은 그들의 의자에서 그대로 화면을 볼 수 있어야 한다.

③ 통행량이 많은 곳을 툭 트이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출입구, 급수대, 연필깎이 또는 통행로 등이 막히도록 책상이나 가구를 배치하지 않아야 한다.

④ 창문, 소집단 공간, 화분이나 관찰 재배 등 아이들의 주의를 다른 데로 끌 만한 요소를 학생들의 정면에 배치하는 것도 피해야 한다.

⑤ 학생용 책상 주변에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⑥ 사물함과 같은 학생용 비품 보관 공간이나 전체 어린이가 함께 쓰기 위해 준비된 종이, 공책, 교과서, 크레용, 가위 등의 비품을 보관하는 장소 또한 통행량을 고려해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나) 소집단 공간의 배치

① 교사의 의자는 반드시 교실을 향하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교사가 교실을 등지고 앉는다면 교사가 돌아보지 않는 한 교실 전체를 관찰할 수 없다.

② 교실 공간에 여유가 있다면 소집단 지도를 위한 탁자를 한두 개 마련하는 것이 좋다. 탁자나 여분의 의자를 이용할 수 없다면 책상 배치를 할 때 어느 한 곳을 소집단 학습을 위한 공간으로 설정하고 교과목에 따라 소집단 지도가 필요한 아이들이 자리를 바꾸어 앉도록 할 수 있고, 교사가 좌석을 할당해 집단별로 돌아다니는 동안 학생들이 소집단 활동을 하기 위해 그들의 책상이나 탁자에 그대로 앉아 있도록 할 수도 있다.

다) 교사용 책상, 파일함, 실물화상기, 기타 설비의 배치

① 교사용 책상을 교수 자료의 보관에 쓰려고 한다면 책상은 일제 학습 공간뿐만 아니라 교수 공간과도 가까워야 한다.

② 아이들이 그들 스스로 학습 활동을 하는 동안 책상에서 일을 할 수 있으려면, 아이들을 쉽게 관찰할 수 있도록 마주 보고 앉아야 한다. 그러나 아이들이 꼭 교사를 정면에서 보아야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교사용 책상은 교실 뒤에 배치할 수도 있다.

③ 교사용 책상에서 학생들과 만나기를 원한다면 책상 주변에는 충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라) 책장의 배치

① 교사의 학생 관찰이나 칠판 또는 학습 관련 내용에 대한 학생들의 시야를 방해해선 안 된다.

② 백과사전이나 독서 교재 등 자주 사용하는 책은 찾기 편한 곳에 있어야 하고 잘 볼 수 있어야 한다.

③ 책장이 하나밖에 없다면 필요 없는 것은 캐비닛에 보관해 책장에는 꼭 필요한 것만 보관한다.

마) 어항이나 화분의 배치

① 어항이나 화분 등의 장식물은 교실에 활기를 더해 주지만 학년 초 첫 주는 다른 흥밋거리가 많은 때이므로 이런 것들을 즉시 준비할 필요는 없다.

② 교실에 이러한 것들을 둘 때에는 어린이들의 주의를 분산시켜서는 안 된다.

③ 학생들의 교실 내 움직임을 방해하거나 개개 학생의 학습 활동을 방해해서도 안 된다.

바) 보관 공간과 비품들

① 자주 사용될 몇 가지 비품은 쉽게 쓸 수 있어야 하고, 계절별로 쓰이거나 자주 사용하지 않을 물건은 깊숙이 보관해도 된다.

② 학생들이 어떤 책을 책상 속에 보관하고, 어떤 책을 사물함에 보관하며, 또 어떤 책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다녀야 하는지 따위를 결정해야 한다.

③ 그런 다음 책장에서 학생들이 보관하지 않으면서도 매일 사용될 책과 학습 자료를 보관하는데 필요한, 쉽게 이용 가능한 선반 또는 상자를 마련해야 한다.

사) 어린이들의 학습 활동에 필요한 비품들

① 매일 자주 사용되는 물건들은 사물함 위나 선반 등 가져오기 편한 곳에 종류별로 상자에 따로 보관해야 하고 때때로 수량을 확인해 모자라는 것은 보충해야 한다.

② 삼각자나 각도기, 모양자 등은 전체 학생 수보다 약간 많으면 되고, 긴 자, 칼이나 가위, 풀 따위는 모둠별로 2~3개 정도만 준비하면 된다.

③ 자원 재활용 차원에서 이면지는 따로 모아 상자에 담아 두면 연습장이나 메모장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④ 연필깎이와 위에 적은 물건들 외에 교실 뒤편의 여유 공간에 장판을 깔아두고 그 위에서 놀 수 있도록 장기, 바둑, 윷놀이 등의 놀이 기구도 충분히 준비해 놓으면 아이들 반응이 무척 좋다.

⑤ 개인 준비물은 학생들이 얼마나 필요로 할 지 목록으로 만들어 학년 초에 학부모에게 알리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면 좋다.

아) 기타 비품

① 어떤 활동의 시작과 끝은 교회에서 기도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데 쓰는 종을 준비해 활용할 수도 있다.

② 교사들이 망치, 펜치, 드라이버 등 기본적인 수리에 필요한 공구를 갖출 수도 있다. 이러한 공구들은 쓰기 쉬운 장소에 보관해야 하지만 학생들이 쉽게 꺼낼 수 있어서는 안 된다.

자) 학생 소지품 보관 공간의 배치

① 책가방, 체육복, 분실물, 알림판 등과 같은 물건들을 보관할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교실 정돈 계획을 세울 때에 이러한 공간을 위해 여분의 공간을 남겨 두어야 한다. 각각의 공간이 어떤 용도로 쓰일지를 표시해 놓을 수도 있다.

② 옷걸이나 사물함 등 학생 소지품을 보관하는 공간을 만들어 두면 교실이 뒤죽박죽되는 것과 소지품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차) 각종 장치와 설비

① 실물화상기, 카세트 녹음기, 텔레비전, 자동 연필깎이 등을 포함한 기계 장치를 배치할 공간도 필요하다.

② 모든 기계 장치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필요한 여분의 전선, 어댑터, 플러그 등을 확보하고 이러한 기계장치들을 사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 참고 자료 및 유용한 사이트

『초등 교사를 위한 학급 경영(Classroom Management for Elementary Teachers)』 캐롤린 M. 에버트슨 외 4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http://kfta.or.kr), 인디스쿨(http://www.indischool.com)

꾸러기들의 지킴이 예은이네(http://picture.edumoa.com), 초등 i-Scream(http://www.i-scream.co.kr)

2011학년도 신규교사 학급경영연수 연수자 명단

순	소속	성명	성별	비고	순	소속	성명	성별	비고
1	인 월 초	강나래	여		17	금 지 동 초	이사라	여	
2	오 동 초	고은지	여		18	남원용성초	이재호	남	
3	산 내 초	김가영	여		19	송 동 초	장수현	여	
4	송 동 초	김나래	여		20	운 봉 초	장혜영	여	
5	산 내 초	김대희	여		21	인 월 초	전해진	여	
6	남원서원초	김동주	남		22	남원용성초	정승민	남	
7	금 지 동 초	김성경	남		23	남원노암초	정영미	여	
8	보 절 초	김정호	남		24	남원중앙초	진신철	남	
9	송 동 초	문공주	여		25	운 봉 초	진정선	여	
10	남원노암초	박윤희	여		26	금 지 동 초	주소연	여	
11	남원서원초	박준오	남		27	남원교룡초	최강국	남	
12	산 내 초	배현지	여		28	남원도통초	한리화	여	
13	덕 과 초	성미경	여		29	남원용성초	한송이	여	
14	수 지 초	오미희	여		30	남원서원초	한우리	여	
15	금 지 동 초	이가희	여		31	아 영 초	홍은영	여	
16	산 내 초	이미경	여						